

오씨유 1주차

□ 역사의 어원

- 역사 = 과거에 일어났었던 사건들
- 단어의 유래 : 고대 그리스 historia에서 유래
- Historia 의미의 변화
 - 기원전 9~8세기경 : 여러 종족들의 관습을 잘 알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
 - 기원 6~ 5세기경 : 질문, 조사의미로 사용 “탐구하여 알아낸다”라는 의미가 유래

□ 동서양에 있어서 역사의 의미

- 중세 : ① 과거에 일어난 사건 자체
② 과거의 사건에 대한 탐구의 결과 (사건의 재구성)
- 18~19세기 : ① 객관적 측면 (사건자체)
② 주관적 측면 (사건에 대한 기술)
- 동양 : ① 사건 그 자체 ② 사건에 대한 기록
- * “사건 그 자체” 와 더불어 그에 대한 탐구의 결과인 “ 사건에 대한 기록” 이라는 이중적 의미로 사용

□ 역사의 의미 (과거의 기록)

- 역사 = 기록된 자료나 역사서를 의미
- 예)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나 사실은 과거의 사실 자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기록을 통해서 인지
- 기록의 종류
 - 써진 기록 (written records) : 문자로 쓰여진 것 (삼국사기, 조선왕조실록 등)
 - 써지지 않는 기록 (unwritten records) : 유물, 유적, 전설 등
- 역사적 사실로 규정할 수 있는 기록
 - : 인간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건이나 사실
- 남겨진 기록 → 무수한 과거의 일부분
- * 일부선택의 기준 : 기록자 (역사가)의 주관

□ 삶의 교훈

- 로마의 석학 키케로 : 역사는 인생의 교사이다.
“ 역사지식은 인성발달의 필수적인 요소인데, 그것은 인간이 만약 자신들이 태어나기 전의 일들을 모른다면 인간은 집단적으로 영원히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 역사상 중요한 인물 : 역사책 탐독, 역사속에서 교훈 획득
- 예) 레닌 : 프랑스 대혁명 등에서 교훈 도출
- 1, 2차 세계대전 교훈 (참혹성) → 3차대전 발발 예방 노력

- 일본의 진주만 기습 교훈
 - 일본 : 설부른 기습 공격은 혹독한 전화 초래
 - 미국 : 유비무환의 교훈
- *역사=과거, 현재 상호관계 → 과거, 현재에 대한 깊은 이해 가능

□ 인간의 자기발견

- 콜링우드 : 역사연구를 통해 인간으로서 자신의 본성 이해
 - :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의 당위성 / 사회적 역할 인식
 - : 역사인식을 통해 스스로 어떤 인간으로서 어떤 인생을 살아 갈 것인가를 결정

□ 지식과 학문의 기초

- 역사는 폭넓은 지식과 지혜 제공(인류가 겪어온 풍부한 경험)
- 역사 연구 : 상상력, 추리력, 분석력, 판단력, 종합적 사고력과 표현력 필요
- 예) 일제의 만행 : 제암리 사건

□ 미래에 대한 예측

- 사회에 영향을 미칠 사건들에 관련된 예측 (개관적인 성향)
- 역사적 사실의 일반화를 통한 변화 예측
- 역사를 통한 미래 예측 → 구체적 사건예측 곤란

※ 역사 연구의 필요성 (소결론)

- 현재와 미래에 대한 삶의 교훈 제공
- 자아발견/ 미래에 대한 스스로의 좌표 마련
- 무궁한 지식과 지혜를 통한 미래 예측
- “ 이처럼 역사는 인간이 지혜롭게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수 있게 해주는 실용적인 학문” 이다.

★ 역사 서술의 형식

□ 동양의 역사서술 형식

- 기전체 : 삼국사기, 고려사, 사기 (사마천) 등
 - : 왕조의 통치자를 중심으로 분류, 서술하여 왕조 전체의 체제를 이해하기 쉬운 역사 서술
- 편년체 : 자치통감(북송), 조선왕조실록
 - : 연월에 따라 기술하는 역사편찬의 한 체제
- 기사본말체 : 통감기사본말(남송), 연려실기술
 - : 사건에 대한 원인과 발단, 전개과정, 후에 미친 영향까지 일관되게 서술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체제
- 강목체 : 춘추(공자), 동국통감제강→줄거리 기사의 강, 구체적 서술의 목으로 작성

□ 서양의 역사서술 형식

- 연대기 : 초기기독교 역사서술, 중세역사 서술
: 과거 사건들의 연대를 계산한 다음 순서에 따라 배열하는 방식
- 연보 : 중세역사 서술 형식
: 관계자가 매년, 매월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그때 그때 작성한 것으로 당대인들에 의해 기록되는 형식
- 전기 : 위인, 정치가, 성자들의 생애를 시대적 배경과 함께 서술하면서 동시대인들과 후세인들에게 교훈을 주려는 목적으로 기술
- 회상록 : 역사적 인물들이 자신들의 생애기간에 체험한 바를 스스로 기록한 일종의 자서전적 기술

□ 조선의 화약무기 (총통 - 대포)

- 다양한 모델의 대포 보유 (1-2미터 길이)(천자총통 지자총통 현자총통 황자총통)
- 총통들은 초대형 화살인 대장군전과 무쇠철환을 쏠 수 있고, 사거리는 대포에 따라 다양하다 (600~4000미터)

□ 함선

- 판옥선, 아다케부네 (안택선) : 일본의 배들보다 판옥선이 훨씬 뛰어났다.

	조선	일본
함선	소나무로 견고하게 제작된 판옥선 (20문 내외 함포 장착) 다수보유 / 평저선, 360도 회전, 탁월한 조선술, 충각전술 *판옥선 1척은 일본 함선 5~10척과 대등	삼나무 송판으로 만들어 가볍고 방어력이 매우약한 원양항해용 함선 (안택선) / 침저선, 빠르고 노략질 용이
전략	주 전략으로 함포사격을 사용 (장병전술)	선박 육박전 (단병전술)

□ 안중근 (1879~1910)

- 조선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 한민족의 혼과 기개가 살아있음을 세계에 알린 영웅
- 의병활동에 투신하기 전 계몽운동에 헌신
- 위대한 독립투사였을 뿐 아니라, 탁월한 정치사상가
- 옥중에서 '동양평화론'을 저술하여 동양 3국이 평화를 구축할 방도를 제시

★ 전쟁의 정의

□ 사전적 의미

국가 또는 정치 집단간에 폭력이나 무력을 행사하는 상태 또는 사실, 특히 둘 이상 국가간에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수행되는 싸움

□ 클라우제비츠

- 아방의 의지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폭력행위
- 전쟁은 다른 수단으로 이어지는 정치의 연속

- 전쟁은 정치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 정치도구로서 정치적 거래의 연속
- * 국가난 준 국가나 상대국가나 준국가를 굴복 내지 패퇴시키기 위하여 전국가적 차원에서 무력을 조직적으로 운용하는 상황

★ 전쟁의 원인

- 무력을 사용하여 정치목적을 달성하려 하거나 강요당한 정치집단간의 정책의지와 상호관계에서 기니
- 두 정치집단의 정책적 의지와 관련해서 상호관계에 있거나 전쟁당사국과의 복합적인 정치관계에서 발생
- 당사국간의 전략적 불균형에 기초하여 한쪽편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나 가능성을 시작으로 현실화

★ 전쟁의 분류

- 전장 규모에 따른 분류
 - 전면전쟁 (General War)
 - : 국토의 전 범위가 전장, 그 결과가 국가의 존망과 직접적으로 관련
 - 국지전쟁 (Local War)
 - : 일정한 영토내에서 지역 또는 소규모 분쟁 형태로 진행
- 전장 투입 규모에 따른 분류
 - 총력전 (Total War) : 정치, 군사, 경제 등 가용한 모든 자원투입
 - 제한전 (Limited War) : 전장의 범위, 무기체계 의도적으로 제한
- 사용 무기체계에 따른 분류
 - 핵전쟁 (Nuclear War)
 - 제래식 전쟁 (Conventional War)

★ 전쟁사 연구 목적 (전쟁사의 이해)

- 전쟁사 (군사사) 정의
 - 전쟁에서부터 교전, 그리고 이와 관련되는 제반 요인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으로 역사학의 한 분야임
- 전쟁사 연구목적 (군대)
 - 전쟁의 본질을 이해 → 미래전 양상 예측 / 대비방향 제시
 - 실 상황에 부합된 신교리 검출 → 교리 발전
 - 간접 경험 체득 → 전술, 전기 연마

★전쟁사 연구 목적 (학교)

- 전쟁에 관련된 지식습득 / 올바른 역사 인식
- 전쟁의 본질과 양상을 이해
- 간접적인 전쟁 경험 및 교훈 숙지

□ 전쟁 재발방지 / 억제의 창의적인 사고력 배양

전쟁상황을 직시하여 미래시대의 불확실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극복할 수 있는 혜안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 및 국가관이 확립된 인재 육성

*전쟁사 연구 중요성

: 전쟁사 연구는 현대인에게 필수적이며 조국과 민족에 대한 신성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전쟁사 연구 방법

□ 연구대상에 따른 연구방법

- 개관방법 : 가능한 많은 전쟁의 전역/ 전투 원인, 경과, 결과 개관

* 전쟁 일반원칙 도출 용이, 전투 현상을 단순화시킬 위험 내포

- 심층분석 방법 : 주요한 전쟁중 전역/ 전투사례를 선별하여 심층적으로 분석

* 개별전쟁에 대한 깊은 분석가능, 일반적인 전쟁원칙 도출 곤란

□ 연구내용에 따른 연구방법

- 전쟁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전후의 변화에 중점을 두는 방법

- 전쟁 수행과정의 분석에 중점을 두는 방법

※ 전쟁현상을 이해하고 전사에 대한 깊은 연구를 위해서는 모든 방법들에 의한 연구가 필요

※ “정확한 이론과 생생한 전쟁사”는 현대적 지성인을 위한 진정한 교재가 되며, 만일이 양자가 위대한 천재를 배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유능하고 훌륭한 dswo를 육성해 낼 수 있다.

오씨유 2주차

- 한반도 분단과정

- 카이로 회담(1943.11) - 미국, 영국, 중국
 - 전후 처리 문제 논의
 - 한반도 적절한 절차(in due course)의거 독립국가 보장
 - ※ 한반도 독립문제 최초 언급
- 테헤란 회담(1943.12) - 미국, 영국, 소련
 - 루즈벨트 한반도 신탁통치 언급, 스탈린 동의
- 알타회담(1945.2.4.) - 미국, 영국, 중국, 소련
 - 패전국처리, 이권배분 문제 논의, 소련 대일전 참전 유도
 - 한반도 신탁통치 잠정 합의
- 포츠담 회담(1945.7.17.)
 - 일본 무조건 항복 / 소련의 대일참전 약속 준수 요구
- 소련 대일전 참전(1945.8.9.)

- 38도선 분단 및 고착화

- 한반도 분할 결정(8.15)
 - Bonesteel 대령 기안
 - 3부 조정위원회 확정
 - 대통령 재가
- 소련의 묵시적인 동의 / 확정(8.16)
- 남 · 북한의 군정
 - 남한 : 하지 중장
 - 북한 : 치스차코프 대장
- 모스크바 3상회의 : 1945
- 미 · 소 공동위원회 결렬
- 한국문제 유엔 이관
- 단독 정부 수립
 - 한국 : 1948.8.15.
 - 북한 : 1948.9.9.

- 2차 세계대전 후 유럽

- 소련의 정세
 - 부동항의 확보
 - 동유럽 공산화 위성국가
 - 철의 장막의 룰 형성
 - 이란 : 소련 병력 증가 ※ 석유 생산량 : 세계 10%
 - 터키 포위 → 다르다넬스 해협 분할
 - 그리스와 연결(공산화) ※ 극동 지역 세력권 확대

- 2차 세계대전 후 미국, 소련의 대립

□ 소련의 팽창 정책 : 1945~1946초

- 부동항 확보, 동유럽 공산화 위성국가
- 터키, 그리스 공산당 활동 지원
- 이란과 만주 지역에 소련군 주둔

□ 미국의 봉쇄정책 : 1946초~1947초

- 트루먼 독트린 발표(1947.3), 대소 봉쇄정책 선언
- 터키, 그리스 경제 원조

□ 미소의 냉전 : 1947초~1949

- 마셜 플랜(1947.6) ↔ 코민포름(1947.9)
- 베를린 봉쇄(1948.6) ↔ NATO 창설(1949.4)

- 미국의 한반도 정책 오류

□ 미국의 군사 전략 / 미 극동방위선

□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 평가

□ 주한미군 철수

- 미국 군사전략 및 극동방위선

□ 미국의 군사 전략

- 미국의 방위 중점 : 유럽
 - ※ 핵무기 의존전략 : 미 공군력과 핵 무기의 결합
- 미국의 극동전략 : 도서방위전략(일본 전략 거점화)
 - ※ 도서들이 제공하는 해군, 공군기지 활용

□ 미국 국무장관 에치슨 연설 : 1950.1.12.

- 미 극동방위선 : 알래스카 - 일본 - 오키나와 - 필리핀
- 미 극동방위선에서 한반도와 대만 제외 발표
“이선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미국이 일방적 또는 단독적인 군사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함”
- 극동방위선 의미 : 중국 문제 불간섭, 일본열도 확보

- 한반도 전략적 가치 평가

□ 테프트 - 가쓰라 밀약 체결(1905.7.29.)

- 일본 :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권익 인정
- 미국 :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권익 인정
 - ※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 낮게 평가

□ 미 합참의 한국에 대한 전략적 평가

- “국가안보면에서 본 미국의 대외원조” 보고서 (1947.4.29.)
 - ※ 미국 지원 필요 : 5위, 미국 안보 중요성 : 15위

□ 웨드마이어 군사사절단 보고서(1947.9)

- 군사상 이점이 없음, 소련군 철수와 동시 미군 철수

- 주한미군 철수

□ 배경

- 미국의 한반도 전략적 가치 낮게 평가
-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감군 및 국방예산 감축
- 소련의 양군 철수 제의(1947.7)

□ 주한미군 철수과정

- 1948.4.8 : 주한미군 철수 정책 결정
- 1948.8.24. : 경비대 인계
- 1948.9.15.~1949.1.15. : 약 16000명 철수
- 1949.6.29. : 완전 철수(미 군사고문단 472명 잔류)

- 국군의 창군 / 군사력 건설(1)

□ 한국군의 창군

- 국방사령부 설치(1945.11.13.) / 군사력 건설계획 수립(3개 사단규모)
- **Bamboo plan(경찰예비대 창설) 작성 및 시험**
 - 최초 1개도에 1개중대씩 창설 → 연대 규모로 증편(총8개연대)
 - 3개 여단으로 증편(1947.12 / 2만명)
 - 5개 여단으로 증편(1948.7 / 15개 연대, 5만명)
- 군정 군사국 → 국방부(1946.3.29.) → 국내경비부(1946.6.15.) → 통위부(1946.9)
- 군사 영어학교(1945.12.5.) → 국방경비대 사관학교(1946.5.1.태릉) → 육군사관학교(48년)
- 대한민국 정부수립 / 국방부 설치 / 국군출범(1948.8.15.)

- 국군의 창군 / 군사력 건설(2)

□ 주한미군의 철수

- 한반도의 주둔 외국군 철수 논의(1947.9~)
- 한미간 잠정적 군사안전에 관한 행정협정 체결(1948.8.24.)
- 주한미군 철수(1948.9.15.~1949.6.30.)
- 미국의 대한 군사원조 기본정책 수립 및 시행 - 방위력 증강을 위한 군사원조 획득 노력
- 연합국방 시책의 기존 → 주한미군 사령관의 잠정적 국군작전통제권 행사
임시 주한 미 군사고문단(PKMAG) 설치 군사지원

- 국군의 창군 / 군사력 건설(3)

□ 군군의 자위력 확보 노력

- 6개 여단 20개 연대 편성(1949.1) / 38선 경비 인수
- 6개 사단(1,2,35,6,7)으로 개편(1949.5.12.) : 도합 22개 연대
- 2개 사단(수도경비사령부, 8사단) 추가 창설(1949.6.10.) : 총 8개 사단
- 국군 상비군 10만명 규모(1949.7)
- 해군 / 해병대 창설(1949년)
- 공군 독립(1949.10.1.)
- 국민 의무병제 실시(1949.8.6)

- 소련 / 중공 대한반도 정책 일치(1)

□ 소련의 대 한반도 정책

- 대외정책 : 팽창정책
 - ※ 재래식 군비증강, 동 유럽 위성국가 공산화 성공
- 아시아 우선정책으로 전환(1948)
 - 체코 공산 쿠데타, 서 베를린 봉쇄
 - 월남, 미얀마, 필리핀, 한국 등을 적화
- 한반도 완전 적화
 - 극동의 팽창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전진기지 확보
 - 일본에 영향력 행사 / 미국에 효과적 대항

- 소련 / 중공 대한반도 정책 일치(2)

□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 전통적인 인식 : 순망치한 보거상의
 - ※ 중국과 국경 접한 한반도 적대국가 존재 불원
- 국공내전 이후 중공의 안보 및 소련의 원조 획득을 위해 한반도 장악 필요
 - 국공내전간 장개석 정부를 지원한 미국이 남한 지원으로 한국과 적대관계 형성
 - 국공내전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혼란 극복 및 대만통합을 위한 소련의 공군 / 해군 지원 필요

- 소련, 중공, 북한의 협력관계(1)

□ 소련과 중공의 상호 일치된 이해관계

□ 북한의 의도 일치

→ 소련, 중공, 북한 3각 협력관계 형성

- 소련, 중공, 북한의 협력관계(2)

□ 북방 삼각 협력관계 완성(1948.12~1950.2)



- 소련, 중공, 북한의 협력관계(3)

□ 김일성 - 스탈린 회담(1950.3.30.)

- 스탈린 정세 판단
 - 국제적 측면에서 중공 공산당의 내전 종료
 - 예기치 못한 사태 발생 시 중공 참전 가능
 - 소련의 핵 무기 개발로 미국의 한반도 문제 개입 제한
- 스탈린은 공격 세부계획 필요성 제기 : 작전은 3단계 설정
 - 38도선 일대 부대 집결 → 새로운 평화 통일 제의 발표
 - 남한이 이를 거부시 공격(최초 군사행동 진실은폐)
- 김일성 : 스탈린에게 “해방전쟁” 설득하여 승인
 - 인민유격대 활동, 인민봉기 발생
- 스탈린 승인조건 : 미국 불개입 및 중공 승인시

- 소련, 중공, 북한의 협력관계(4)

□ 김일성 모택동 회담(1950.5.13.)

- 모스크바 회담 내용 설명 / 스탈린 의도 전담
 - ※ 모택동과의 합의를 통해 최종결정 희망
- 모택동 : 스탈린 의도 직접 확인 요청
- 스탈린 : 모택동에게 자신의 의도 전문 발송
 - ※ 김일성과 스탈린의 회담내용 확인
- 모택동은 김일성 계획에 동의
 - “미군이 참전한다 해도 중공은 병력을 파견 북한 지원”

- 6.25 전쟁의 원인

□ 국제적 요인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소련의 대립
-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오류
- 소련, 중공의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계 일치

□ 국내적 요인

- 남,북한의 군사력 불균형 및 전투준비태세 미흡
- 국내정서 혼란

- 군 수뇌부 모순된 조치

□ 경계태세 발령 / 해제

- 발령 : 1950. 4월 이후 3회(노동절, 국회의원 선거, 6월 위기설)
- 최종해제 : 1950.6.24. 00:00

□ 국방부장관의 기자회견(5.10)

□ 주요지휘관 / 직위자 대폭 교체(6.10)

□ 연대급 부대 예속 변경(6.13~20)

□ 노후차량, 공용화기 정비 입고

□ 군사지도(1:50,000) 회수

- 국내정세 혼란

- 정치 : 정당의 난립 / 집권당 정치기반 취약
- 경제 : 화폐발행고, 물가상승 등
 - ※ 국민의 기본적인 식생활 해결 급급(보리고개)
- 사회 : 남로당 및 무장공비 활동(폭동, 반란, 파업)
- 군(軍)
 - 좌익세력의 침투 : 군내시위, 하극상, 상관 폭행
 - 폭동 : 여수 / 순천, 대구 사건
 - 건제부대 월북 사건(소령 표무원, 강태무)
 - 전투준비태세 미흡 및 비정상적인 제 조치

- 소결론

- 미국, 소련 냉전체제의 산물
 -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한 38도선 설정
 - 미국, 소련의 냉전이 한반도에서 격화되어 열전화
- 남북한 군사력 불균형과 국내정세 혼란
 - 김일성에게 남침시 승리확신
 -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참상”

- 용어정립

- 6.25 전쟁 용어 의미
 - 사변, 동란
 - 불법집단인 북한 공산 세력에 의해 자행된 무장폭력을 강조
 - 대한민국 정통성 강조 및 전쟁의 외인적 요소 배제
 - 내전, 내란
 - 남북한 쌍방의 권력투쟁
 - 전쟁의 책임이 남북한 동등하게 내재한다는 점을 부각
 - 전쟁
 - 남북북단 체제의 갈등과 대치상황이 배경, 남북간의 전면전
 - 미국, 중공의 정규적인 군사력 충돌 고려, 전쟁으로 명칭 타당
- 한국전쟁 → 6.25전쟁(2004년 4월 교육부)
 - 한국전쟁은 제3국의 입장에서 사용되는 언어
 - 국사 교과서 수록 부적절 : 교과서 편수용어 확정
 - 반세기동안 하나의 역사적 명칭으로 굳어졌음
- 국제사회에서의 명칭 : The Korean War
 - 일본 : 조선전쟁
- 과목명칭 변경이 바람직함, 한국 전쟁사 → 6.25 전쟁사
- 현재 국방부는 두 명칭을 혼용(국제 교류시)

- 부대의 제대 구분

- ☐ 분대 : 소대나 반보다는 작은 편성체로서 분대장에 의해 지휘되는 전투임무수행의 최소단위 부대
- ☐ 소대 : 최하위 전투제대 / 돌격의 기본단위
- ☐ 중대 : 자체본부 및 2개 이상의 소대로 구성 / 통상 대위가 지휘하며 기본전투단위부대
- ☐ 대대 : 자체본부 및 2개 이상의 중대 또는 포대로 구성된 단위 부대
- ☐ 연대, 사단, 군단, 군사령부

- 6.25전쟁 개관

- ☐ 제 1단계 : 50.6.25~50.9.15 북한군 남침기
- ☐ 제 2단계 : 50.9.15~51.10.25 UN군 반격 / 북진기
- ☐ 제 3단계 : 50.10.25~51.7.10 중공군 침공 / UN 반격기
- ☐ 제 4단계 : 51.7.10~53.7.27 교착전기

오씨유 3주차

유의 사항

-남한, 북한, 조선 등 다양하게 사용되는 용어들을 각각 한군, 북한으로 통일한다.

따라서 그 군대도 한국군, 북한군으로 쓴다.

-중국이나 북한과 관련된 용어는 전쟁사의 맥락에 맞도록 중공, 중공군, 공산군등 적절하게 표현했다.

-중공군의 편제단위는 아래 표와 같이 6.25전쟁 당시에 사용한 대로 썼다. 다만, 유엔군의 연대에 해당하는 중공군의 단 만은 이해를 돕기위해 연대로 통일했다.

구분	xxxxx	xxxx	xxx	xx
유엔군 집단군	야전군	군단	사단	
중공군 야전군	병단	군	사단	

-집단군

몇 개의 야전군으로 구성된 구 L사 조직으로 무한정 기간 동안 자급자족 가능한 부대 편성 단위. 집단군은 단일 지휘관 (보통 원수 또는 대장) 이 지휘하는 가장 큰 야전 조직으로, 일반적으로 400,000명~1,500,000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이 집단군은 하나의 국가가 갖는 총 병력과 맞먹는 규모이기도 하다.

-군

육군의 부대 편성 단위 중 가장 큰 부대단위, 사령부로 구성되어 있고, 보통 다수의 사단으로 이뤄진 군단을 최소 2개 이상 통제하는 부대, 대장 혹은 중장이 지휘

-군단

야전군과 사단의 중간에 해당하는 전술 단위 부대. 2개 이상의 사단으로 구성되며, 통상은 3개 사단으로 구성된다. 작전에 따라 규모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으며 또한 군단 자체의 직할 전투부대(특공여단) 및 전투지원부대를 보유하고 있다. 병력규모는 30,000명~80,000명으로 작전지역 및 임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북한군의 경우 포병부대가 군단으로 편제되어 있다.통상적인 군단장은 중장.

-사단

연대나 여단보다는 크고 군단보다는 작은 부대 단위. 사단은 지역에 따라 독립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능력을 보유하는 최소의 전략 단위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여러개의 여단 또는 연대로 구성되며, 여러 개의 사단이 모여 군단 등을 구성한다. 21세기 초 현대의 각 나라의 육군 사단은 2~4개 연대 또는 여단을 기초로 하여, 보병, 포병, 공 병등의 전투 병과와, 군수 등의 후방 지원 부대 등으로 구성된다. 병력 규모는 대체로 6,000명에서 20,000명 정도이다. 통상적인 사단장은 소장.

-여단

연대보다 크고 사단보단 작은 부대 단위. 그러나 사단의 통제를 받는 연대와는 달리 여단은 군단 사령부의 통제를 직접 받는다. 비록 규모가 작더라도 여단은 일반적으로 사단과 동급의 단위 부대로 인식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1개의 보병여단은 4개의 보병대대와 1개의 포병대대, 그리고 직할대로 구성된다. 직할 대에는 수색중대, 전차중대, 의무중대, 전투지원중대, 통신중대,공병중대, 본부중대가 포함된다. 1개의 보병 여단은 3,000~5,000명의 병력으로 구성된다. 여단장은 준장이 맡는 것이 일반적이나, 대령이 맡는 경우도 있다.

-연대

대대보다 크고 여단보다 작은 부대 단위. 본래는 여단의 하급부대, 대대의 상급부대에 해당되지만, 사단 바로 아래에 연대를 두는 편제나 연대의 바로 아래에 중대를 두는 편제도 드물지 않다. 편제는 3개의 보병대대, 직할대 등으로 구성된다. 직할대에는 수생중대, 의무중대, 전투지원중대, 통신중대, 본부중대가 포함된다. 1개의 보병 연대는 2,000~3,000명의 병력으로 구성된다. 통상적인 연대장은 대령이나, 중령이 맡는 경우도 간혹 있다.

-대대

중대보다 크고 연대보다 작은 부대 단위, 대대는 단독작전이 가능한 최소단위의 부대이다. 일반적으로 3개의 보병 중대, 화기중대, 본부중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병력은 300~1,000명 정도다. 통상적인 대대장은 중령.

-중대

소대보다는 크고 대대보다는 작은 부대 단위. 중대장부터 가슴에 지휘관 휘장을 착용한다. 약 100여명의 병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대장은 일반적으로 대위가 임명된다. 통상적으로 3개의 소대, 60mm포반, 중대본주로 구성되어 있다.

-소대

분대보다는 크고 중대보다는 작은 부대 단위, 통상적으로 3개의 분대와 통신병, 부소대장, 소대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소대장은 위관장교, 부소대장은 부사관을 임명하나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대계 부사관들이 맡는다. 약 30~40명의 병력으로 구성된다.

-반

소대보다는 작고 분대보다는 큰 부대 단위. 대부분의 군대에서 반은 10명에서 20명 정도로 군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포병 중대 같은 경우에는 60mm 박격포 포대가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분대

소대의 하급 부대이며 분대장이 지휘하는 10명 내외의 부대이다. 근대 이후의 보병 분대는 소총을 주력으로 하며 1정 정도의 경기관총(또는 경박격포 등 분대 지원 화기)을 장비하는 것이 보통이다. 해군 등에서도 육상전 부대를 편성하는 경우에는 이와 비슷한 편제로 구성한다. 대한민국 육군에서는 소총부대를 소총수 7명(분대장, 부분대장,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총 부사수포함), 유탄발사기 사수 2명,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총 사수 1명으로 구성한다.

북한군 남침계획

러시아측 자료 공개(1992~2002)

-선제타격 계획 -반격계획

북한군 3단계 남침계획

북한의 남침계획

북한국 작전개념

-주공 : 1군단(서부지역)

-조공 : 2군단(중동부지역)

일부병력은 동해안까지 진격

기동계획 : 단계화

-1일 10km씩 진격, 부산까지 50일 계산

남침계획 기본개념

-전쟁개시 2일차 서울점령

-인민봉기 유발 한국정부 전복

-신속히 남해안까지 진출, 1개월내 전쟁종결

1단계 : 국군 주력 포위격멸단계 (2일내 서울 점령, 수원-원주-삼척 진출)

2단계 : 군군 증원병력 격멸 및 전과확대단계 (군산-대구-포항 진출)

3단계 : 남해안 진출 및 국군 잔적소탕단계 (목포-여수-부산 전개)

구분	제1군단						제2군단			
	3경비여단	6사단	1사단	4사단	3사단	105 전차 여단	2사단	12사 단	모터 사이클 연대	1경비 여단
공격 방향	서해안 축선	개성- 김포 (영등포)	문산- 서울 (수색)	동두천- 서울 (수유리)	포천- 서울 (상봉동)	1 . 4 3 47번 도로	춘천- 한강 이남 (하남)	인제- 홍천	홍천- 수원	동해안
목표	웅진 반도	한강 이남 포위	서울 서측 점령	서울 북측 점령	서울 동측 점령	한강교 점령	한강 이남 포위	여주- 원주	수원 이남 포위	강릉
비고		2차 양익포위 (한강이 남)	1차 양익포위 (한강이북)			1차 퇴로차 단 (한강)	2차 양익포 위 (한강이 남)		2차 퇴로차 단 (수원)	

북한의 대남 교란작전

인문유격대 남파(10회, 2,400여명)

38선 불법 도발 자행

-국군의 경계태세와 전투력을 탐색

-군산적인 불안감을 조성 (38선을 실전훈련장으로 이용)

남침 직전 평화공세

- 대남 심리전 (전단살포/ 대남방송)
- 평화통일 서명 운동 전개 (북한주민 대상)
- 조만식 선생과 남로당 간첩 교환

북한군 남침계획 분석

북한 남침계획의 특징과 문제점

- 한강이북 1차 양익포위, 한강이남에서 2차 양익포위
- 105전차여단과 603 모터사이클 연대 등 고속기동부대 운용

-전제조건(가정상)의 문제점

미군이 효과적인 대응을 하려면 2개월 이상 소요 판단

남로당 인민봉기 기대

-2단계 이후 후속계획 및 준비 소홀

인민봉기로 한강이남 무혈점령 가능

2단계 이후 군단간 상호지원 고려치 않고 전략중심으로 기동

북한의 전쟁준비

소련의 북한 지원

-전쟁물자와 장비 지원

-군사 고문단 파견(북한군 훈련과 군 간부 육성교육 지원)

-북한군 전투력이 향상 되자 소련은 군산고문단 규모를 줄이고 군사 사절단 파견
직접적으로 북한의 전쟁 준비 관여

북한의 전쟁준비

중공의 북한 지원

-한인계 중공군을 북한군으로 전환시킴

북한의 병력 증가

ex) -김창덕이 이끄는 중공군 제 164사단이 북한군 제 5사단으로 개편

-방호산이 지휘하는 궁공군 제 166사단이 북한군 제6사단으로 편입

남한의 전투준비태세

-북한군회 남침 징후 무시

북한군 대부대, 차량 야포등 38선 남하

북한군 지형정찰, 귀순병사 진술

정보요원 T-34전차 사진 촬영 보고

북한군 부대교대 징후 정도로만 처리

-정부차원의 미온적 조치

육분의 38선 축성공사비 상신 : 49.12월

-국방예산 삭감

전력증강 긴급건의서 상신 : 50.4월

-한국 국회 : 미 상정, 미 국방정 : 무반응

적 공격판단

-주공 : 동두천 > 서울

-조공 : 개성,문산 > 서울

방어계획

-주방어지대 유린시 : 순차적 역습

38산 고수하는 지역방어개념

군예비

수도사, 2,3,5사단

정보판단

-적 주공 : 의정부 축선

-적 조공 : 분산 축선

방어개념

-전방 4개 사단으로

38도선 고수방어

-전방 돌파예상시 후방부대 증원/ 역습

한국군 방어계획 문제점

-적 주공방향에 대한 대비책 미흡

-후방 부대의 분산배치>적의 집중공격 대비 제한

-포병 운용의 부적절

-세부계획/ 예비계획 발전 미흡

-후방사단의 전방 이동/투입계획

-장애물계획, 역습 및 철수계획

-전방사단 : 기동훈련/ 도상연습 미흡

38도선 고수방어 개념으로 융통성이 결여

한국군 방어계획

□적 공격판단

주공 : 동두천 > 서울

조공 : 개성,문산 > 서울

□방어계획

주 방어지대 유린시 :순차적 역습

*38선 고수하는 지역방어개념

군예비

수도사, 2,3,5사단

정보판단

-적 주공 : 의정부 축선

-적 조공 : 문산 축선

방어개념

-전방 4개 사단으로 38도선 고수 방어

-전방 돌파 예상시 후방부대 증원 /역습

한국군 방어계획 문제점

□ 적 주공방향에 대한 대비책 미흡

□ 후방부대의 분산배치 > 적의 집중공격 대비 제한

□ 포병 운용의 부적절

□ 세부계획/예비계획 발전 미흡

- 후방사단의 전방 이동/투입계획

- 장애물계획, 역습 및 철수 계획

□ 전방사단 : 기동훈련/도상연습 미흡

*38도선 고수방어 개념으로 융통성이 결여

남 , 북한군 배치

□ 한국군

1사단 : 개성,문산 축선

7사단 : 의정부 축선

6사단 : 춘천, 홍천 축선

8사단 : 양양, 강릉 축선

수도사단 : 서울

2사단 : 대전

3사단 : 대구, 부산(보현산 공비 토벌)

5사단 : 전주, 광주(덕유산, 지리산 공비토벌)

□ 북한군

1군단 : 1,3,4,6사단

105전차여단

13사단(예비)

2군단 : 2,5,7사단

766군부대

전차연대
 15사단(예비)
 전략예비 : 10사단

남, 북한 군사력 불균형

구분	한국군	북한군	비고
병력	103,837명	201,050명	1:2
전차	0대	242대	
야포	91문	728문	1:8
항공기	22대	211대	1:10
훈련	대대급훈련완료: 16개대대	사단기동훈련/ 보전포협동훈련 완성	
전투경험	비정규전 : 공비토벌 38선분쟁	한인계중공군(28000명) *5.6.12사/1.4사에 각 1개연대 한인계 소련군(5000명)	
	소수의 일본군 출신 지휘관 : 소부대 전투지휘 경험	다수의 팔로군 출신 지휘관 : 대부대 전투지휘 경험	

당시 북한군 T-34/85전차
 전쟁 발발 당시의 국군은 북한군의 전차에 대항할 어떠한 화기도 갖고 있지 않았다

남,북한군 작전 분석

북한군	한국군
전방 병력 집중 주,조공 운용, 한국군 주력 조기 섬멸 1단계 작전 성공시 손쉽게 전화통일 가능 판단	적 주공방향 전투력 미약 병력 분산 운용 세부계획 미수립

남한의 전쟁대비상황

▣ 한국군의 경계태세가 허술했던 원인

- 38도선은 남한과 북한이 유리한 진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충돌이 잦았던 곳.

>> 한국군에는 비상경계령이 수시로 발령됨.

---> 한국군의 경계태세가 느슨해지는 결정적 원인

▣ 애치슨 라인 탄생

- 대한민국 정부는 재정난 극복 및 군사적 증강을 위해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미국에 호소함

-> 하지만 미국은 '한국군을 증강시킬 경우 한국군의 북침이 우려된다' 는 판단내림

이는 애치슨 라인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됨

▣ 한국군과 북한군의 차이

- 한국군 : 미국의 안일한 판단에 기대어 북한의 위협에 대해 경계를 풀고 있는 상태

- 북한군 : 지속적인 전력증강

->> 한국군과 북한군의 전력 차이는 매우 커짐

한국군, 지휘관 교체

4월-6월 대규모 인사이동	제 4대 육군 총참모장으로 채병덕 소장 부임
	참모부장이었던 정일권 준장 해임
	육군본부 전체 참모(정보, 군수 외) 교체
	작전 참모부장에 김백일 대령 부임
	전군의 사단장 인사이동(제 1사단장에 백선엽 대령 부임)

> 많은 병력들을 관리, 통솔하는 업무 인계인수 시간이 짧았음

초기 전투에서 한국군이 패퇴를 거듭하게 되는 큰 요인이 됨

남침 징후 무시

① 남침의 징후

1. 남북간의 잦은 군사적 충돌

- 1949년부터 38도선 부근에서 잦은 교전

ex) 송악산 전투(1949년 5월 송악산을 탈환하기 위해 한국군 제1사단 11연대의 10명의 특공대가 육탄 돌격하여 북한군 진지를 모두 파괴하고 산화)

2. 남침이 있을 거라는 소문이 무성하였을 정도로 북한의 남침 징후 농후

② 남침 징후 무시

1. 전쟁 발발 직전 북한이 북한(조만식 선생) <-> 남한(억류중인 A급 간첩)을 교환하자는 일종의 평화공세를 취함

남한 쪽에서 위의 제의를 속임수로 생각하고

---> 6월 11일 비상 경계령 발령

2. 6월 24일 00시를 기해 효율성 약화를 우려하여 비상 경계령을 해제

-> 밀려 있던 휴가 및 외출 외박을 보내서 병력의 1/3 이상이 부대를 이탈

* 6월 24일 밤에 '육군 장교구락부'의 개관식이 열림

-> 군의 주요 수뇌부들이 참여하여 각 부대의 지휘에 공백이 생김

---> 결과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함

양 진영의 작전 계획

북한

1. 주공인 제1군단을 서울 북쪽 방면에 위치하여 서울을 공격하고자 함.
2. 조공인 제2군단은 춘천을 돌파한 후 그 일부 병력을 서울 동남쪽 방면으로 이동시켜 한국군 주력 병력의 퇴로를 차단함.
3. 한강 북방 일대에서 퇴로가 차단된 한국군을 포위, 격멸함. 상황에 따라 다시 일부를 대전 혹은 대구 방향으로 이동시켜 한국군을 소백산맥 이북에서 포위, 섬멸함.
4. 나머지 일부 병력은 동해안을 따라 신속히 부산으로 진격하여 주공의 진출에 기여함

남한

1. 방어의 중심을 의정부 정면에 두고 38도선을 기준으로 경계진지, 주진지, 예비진지로 나누어 구분 편성함
2. 북한군이 주진지를 돌파하였을 경우 사단 자체 역습으로 방어진대를 확보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어개념.
3. 예비진지는 최후저항선으로서 반드시 확보해야 함.
4. 후방에 배치되어 있는 사단은 예비 전력으로서 위급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역습을 실시하여 방어진대를 확보한다는 임무를 가지고 있음.

오씨유 4주차

-순서

등장인물

개전초기 전황 및 남침의 증거

웅진 반도 전투

개성-문산 전투

의정부 지구 전투

춘천-홍천 지구 전투

동해안 일대 전투

등장인물

백인엽 대령

1992년 평남 강서 출생, 학도병 일본군 소위, 1946년 군사영어학교 졸업, 인천상륙작전 시 제 17연대장, 1951년 제1훈련소장, 1952년 4월 제 6사단장, 1956년 4월 제1군단장, 1958년 제6군단장, 1960년 5월 중장 예편, 백선엽 동생

백선엽 준장

1920년 평남 강서 출생, 1941년 12월 만군 9기, 1946년 2월 군사영어학교 졸업, 1949년 7월 제5사단장, 1950년 4월 제1사단장, 1951년 4월 제1군단장, 1951년 7월 휴전회담 대표, 1951년 11월 지리산 토벌사령관, 1952년 3월 제2군단장, 1952년 7월 육군참모총장, 1953년 1월 최초로 대장 진급 1954년 2월 제1군사령관, 1957년 5월 육군참모총장, 1959년 2월 합참의장, 1년 5월 예편.

유재홍 준장

1921년 일본 나고야 출생, 일본 육사 55기, 1946년 1월 군사영어학교 졸업. 1949년 5월 제6사단장, 1950년 1월 제2사단장, 1950년 6월 제7사단장으로 의정부 방어. 1951년 5월 제3군단장으로서 중공군 5월 공세 시 군단 붕괴의 수모를 겪음. 1952년 1월 휴전회담 대표 1952년 7월 제2군단장, 1957년 5월 합참의장, 1959년 2월 제1군사령관, 1960년 7월 중장 예편.

김종오 대령

1921년충북 청원 출생, 학도병 일본군 소위, 1946년 군사영어학교 졸업. 1950년 6월 제6사단장으로 춘천 지구 방어에 성공하여 북한군 서울 포위를 좌절시킴. 1951년 3월 제3사단장, 1952년 5월 9사단장, 1952년 11월 육사교장, 1952년 6월 1군단장, 1961년 6월 육군참모총장에 이어서 1965년 4월까지 제 7,8대 합동참모회의 의장.

이성가 대령

중국 봉천 출신, 국민당군 소좌 출신, 군사영어학교 임관, 1950년 초대 8사단장으로 영천 전투 승리(낙동강), 영변 맹산에서 중공군에게 패전하여 중형을 받았다가 복직되기도 하여 승패의 기복이 심했던 지휘관, 7사단장, 소장 예편.

이형근 중장

1920년 충남 공주 출생, 일본 육사 56기, 전직 일본군 대위. 군사영어학교 1기, 군번 1번으로 임관, 1946년 5월 국방경비대 사관학교 교장, 1949년 8월 제8사단장, 1950년 6월 한국대전 개전 시 보병 2사단장, 1950년 10월 제3군단장, 1951년 9월 휴전회담 대표, 1952년 1월 제1군단장, 1952년 대장 진급, 연합참모본부 의장, 1956년 육군참모총장

신성모 국방장관

1891년 경남 의령 출생, 중국 남경 해양대 졸업, 열국 상선 선장, 1949년 국방부장관, 해양대학장.

채병덕 소장

1917년 평양 출생, 일본 육사 49기, 병기 소령으로 임관, 1946년 1월 군사영어학교 졸업, 1946년 5월 통위부 특별부대장, 1950년 4월 대 총참모장, 1950년 6월 개전 초 남침 저지 실패, 정일권 장군에게 총참모총장 직을 인계하고 1950년 7월 26일 전남 지역에 북한군 6사단 출현 시 미 25사단 선발 부대와 함께 전투 중 하동에서 전사, 사후 중장으로 추서.

1. 6.25전쟁발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은 38도선을 넘어 남침 개시

38도선 부근과 동해안 일대가 순식간에 아비규환

한국군의 어려움:

휴가, 외출, 외박으로 인해 병력이 많지 않은 상황

전차, 자주포, 대전차무기 미보유(화력 열세)

전차에 몸을 던지는 활약에도 불구하고, 전세를 뒤집는데는 역부족

2. 개전 직후의 상황 전파

-38도선 부근 전방의 이상 징후는 24일 밤부터 감지되기 시작 (북한군의 특이사항 보고)

익일 10시경에야 겨우 대통령에게 북한의 남침 소식 전달(이미 개성이 함락되었으며, 탱크를 앞세운 북한군이 춘천 근교에 도달)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에 봉착

3. 북한의 남침 사실 은폐 및 북침 조장

-북한의 평양방송

남조선이 북침했기 때문에 자위조치로써 반격을 가해 전쟁을 시작했다.

이는 남침 사실을 은폐하고 북침을 주장하여 전쟁의 책임을 한국에 떠넘기려는 알뜰한 술수
아직도 일부 인사들이 북한의 주장에 동의하여 북침설을 주장하기도 한다.

남침의 증거

피아 군사력 비교 : 한국군의 공격 불가능

-병력 : 20만 천 병 10만 3천으로 북한군 우세

-전차 : 242대 보유대비 한국군 미보유

전선지역 군사력 배치 : 한국군 공격제대 편성 불가

-한국군 4개사단(7개연대), 1개연대

-북한국 9개사단, 1개전차여단, 1개 특수부대

공격당일 전개상황

-북 주장 : 국군 북침 저지 후 인민군대 반격

먼저 공격 당한 후 불과 몇 시간 만에 반격 불가능

-북한국 제 4사단 전투명령 1호

1. 아군의 방어정면에는 적(국군) 제7사단 1연대가 방어한다
2. 사단은 군단의 공격정면에서 적의 방어를 돌파하며 최초 마지리 535고지를 점령하고 서울 방향으로 진격한다
3. 우익에는 제 1보사가 공격하며 좌익에는 제3보사가 공격
9. 포병 공격사격은 30분간이며
10. 항공대는 적의 군사시설, 도로를 파괴하며
11. 반항공대책은 적기내습시 보병무기의 30%를 동원
13. 지휘소는 6월 23일부터 전개하며 이동축은 의정부로 통하는 도림○향이다
16. 기본신호 공격개시- 폭풍(전화), 244(무전)
돌격개시-녹색신호탄, 244(무전)

-한국군이 38도선 이북 공격 혹은 진격한 사실 없음

한국군의 해주진입설(북한 및 북침주장자)=오보

북한국은 오직 이남을 향해 진격 및 공격

38도선 부근에서 방어전 실시 혹은 후퇴한 사실 없음

-북한의 남침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물증 발견

전쟁 중 노획된 북한국군의 선제타격계획

러시아에서 발견된 비밀문서 = 소련, 중국 . 북한의 치밀한 전쟁준비 및 구체적인 남침계획이 드러나있음.

북한의 남침은 오늘날 러시아도 인정한 사실이다.

확인된 역사적 사실

소련이 지원한 북한주도의 남침

- 1949년 3월, 스탈린을 상대로 김일성이 남침승인을 끈질기게 요구한 것
- 1950년 4월, 스탈린의 세부적인 전쟁지도와 증원약속
-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은 스탈린과 소련장군들에 의해 미리 계획되었을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지원되었음

개전 초기 주요 전투

1. 웅진반도 전투 17연대 : 3사단

2. 개성 문산 전투 1사단 : 1사단, 6사단
3. 의정부지구 전투 7사단 : 3사단, 4사단, 105전차여단
4. 춘천 홍천지구 전투 6사단 : 2사단, 12사단, 603 모토사이클연대
5. 동해안 일대 전투 8사단 : 1여단, 766특수부대

전반적인 전황

-북한군 : 기습 공격으로 긴선제압 및 한국군 혼란으로 우세한 상황
 -한국군 : 38도선 부근의 서부-중부-동부 전선에서 대응하였으나, 병력의 숫자 및 전투력에서 열세에 처함

웅진반도 전투

웅진반도 : 한국군 독립 제 17연대가 지킴. 그러나 1개 연대로 감당하기 힘든 넓은 지역.
 북한군 : 2개 연대 규모로 침공개시.
 한국군 : 지연전 전개, 개성과 문산 지역에서 한국군이 후퇴하면서 웅진반도가 고립될 위기,
 결국 17연대는 해상으로 철수

제17연대

전면전시 해상 철수(부포항, LST 2대)

45km 광정면 방어

7포병대대 직접지원

1대대 대대장 전사- 예비 2대대 증원

3대대 통신두절

해상철수

연대(-2) : 부포항 철수

- 6월 26일 01:00
- LST이용, 인천으로
- 1,2대대: 사곶형 철수
- 6.25 21:00
- 민간화물선 이용
- 사곶> 군산으로

개성-문산 전투

-94km의 넓은 지역, 한국군 제 1사단이 방어

<전개과정>

1. 북한군 제1사단과 6사단이 공격
2. 개전 5시간 만에 개성이 피탈
3. 임진강과 곡릉천에서 북한군의 공격에 저항
4. 6월 28일 서울함락 및 한강교 폭파로 퇴로차단
5. 한강을 도하해 시흥으로 철수, 그 과정에서 피해
 이 전투로 북한은 한강 이북지역을 손아귀에 넣음

국군 재1사단

-백선엽 대령

-12,13연대 94km담당

-11연대 예비(수색)

북한군 6, 1사단

-203전차연대(-)

기차 이용 개성 측후방 한국군 12연대 배후로 공격 개전 5시간만에 개성 피탈

한국군 13연대 3대대: 주진지인 파평산 일대로 철수

예비 11연대 문산 투입

의정부, 서울 함락에 따라 철수

의정부지구 전투

-북한국 제1군단과 2군단이 서울을 향해 진격

<진격과정>

1. 북한군은 의정부 방향으로 주력군을 투입
 2. 한국군 제7사단은 동두천-포천지역에서 방어
 3. 6월 25일 동두천-포천이 북한군에게 점령당함
 4. 6월 26일 역습을 실시하여 동두천 일시 탄환
 5. 포천 탈환 실패 및 의정부 함락으로 분산 철수
- 이 전투의 결과 서울의 위기는 더욱 가까워졌다.

-작전지역 특징

도로망 발달/ 고지군 형성

-투입부대

한국군 : 7사단

1, 9연대 47km 담당

25연대 7월 15일 이동 예정

북한군 : 3,4사단, 105전차여단

북한군 1군단 작전개념

1군단 작전개념(1단계)

정면의 국군 2개 사단 및 1개 연대를 격멸, 3일차에 서울/한강교를 신속히 점령

한강이북에서 서울 1차 양익포위/국군의 퇴로 및 증원을 차단, 1단계작전목표인 수원-원주선을 5일 이내 점령

4사단 작전개념

사단은 의정부-서울을 정면에서 공격, 의정부 점령 후 1, 3사단 및 105전차여단과 협조, 서울점령

3사단 작전개념

사단은 이동-서울 동측방 공격, 제4사단 및 105전차여단과 협조하여 서울 동측방 점령

105 전차여단 작전개념

고속기동부대로서 전쟁개시 2일차에 의정부지역 투입
서울 방향으로 공격 한강교 조기점령/ 국군퇴로 및 증원차단

북한군 전투편성

제1제대

제3사단 : 제7,8,9 보병연대, 포병연대

제4사단 : 제5,16,17 보병연대, 포병연대

제2제대

제13사단 : 제19,21,23 보병연대, 포병연대

제15사단 : 제45,49,50 포병연대, 포병연대

보병연대는 3개 대대 편성

포병연대는 76mm(2개 대대)

122mm(1개 대대)로 편성

고속기동 부대

제105전차 여단(-)

동두천 : 203전차연대 3대대

포 천 : 제107, 109전차연대

전차연대/대대는 3각 편제

전차중대는 4대로 편성

대대 : 13대, 연대 : 40대

포병부대

제17포병연대

동두천 : 제1포병대대

포 천 : 제3포병대대

122mm평사포 대대와

122mm곡사포 대대로 편성

제7사단 방어계획

-1연대 : 동두천, 9연대 : 포천

-전방 : 1개대대, 경계임무수행

-주저항선 : 각 연대 주력배치 북한군 공격격퇴

전방 1개개 대대 외에 28km 후방인 의정부 지역에서 훈련

작전경과

포천 방면

-14:00 주진지 와해

제3연대 송우리로 급파

-17:00 덕정/강릉으로 철수

역습 결정(26일, 01:00)

6월26일, 08:00 역습 실시

포천 : 2사단

동두천 : 7사단 2개연대+18연대

의정부지구 전투 분석

방어 계획 및 전투준비

- 예비대 미확보 : 식수 및 막사 문제(25연대 온양에 위치)
- 주저항성 투입병력 의정부일대 야외훈련 중(2개 연대)
- 주요장비 반남(중화기 25% 수리)

전투력운용 측면

- 고지 정상 위주 병력배치로 전차/ 도보부대 우회
- 촉차적인 병력 투입/ 혼합편성 지휘통제 곤란
- 후방 증원부대 전투력 발휘 제한(병력, 탄약, 지휘 등)
- 초기전투시 예비대 제한으로 융통성 결여

주도면밀한 방어계획과 전투준비태세 중요성 인식

역습계획/ 실시

- 6월26일,08:00 역습실시(1:00 총참모장 결심)

>포천 : 2사단

>동두천 : 7사단 2개연대 + 18연대

- 정치적, 심리적 이유로 강행(서울 사수) : 전략적 관점 분석

- 전방 상황판단 미흡 : 적 능력 과소평가(1개 사단 정도)
- 전투준비 미완료된 상태에서 촉차적 전투력 투입
- 역습부대와 협조된 역습 미실시(협조회의 미실시)
- 임기응변식 부대지휘 : 주요 지휘관 전술식견 부족

차후 작전에 미친 영향

한국군

- 의정부 조기함락으로 1사단, 6사단 전선 조정
- 의정부 방어실패로 개전 3일만에 수도 서울 피탈
- 한강교 조기 폭파의 원인 제공

>한국군 전투력 조기 상실

>많은 피난민 및 정부기관 피난 미실시

- 7사단의 심대한 전투력 손실로 차후작전제한

북한군

- 한국군 주력 격멸 및 서울 탈취
- 신속한 기동력 발휘 및 공세작전 여건 조성
- 전술적 작전실패는 작전적/ 전략적 상황에 영향

춘천-홍천 지구 전투

- 북한국 제2사단은 춘천, 12사단은 홍천을 공격

<전개과정>

1. 북한군의 공격에 맞서 한국군 6사단이 방어
2. 화천-춘천 사이의 모진교 폭파 실패로 위기
3. 6사단과 16포병대대가 북한군의 소양강 도하 저지
4. 북한군 자주포 파괴, 전차 격멸 등의 성과
5. 서부전선이 무너짐에 따라 원주 방향으로 철수
3일간 북한군의 남하를 성공적으로 저지하였음

국군 제6사단

-대령 김종오

-84km 담당

북한국 2, 12사단

-603모터싸이클 연대

제6사단 방어계획

-적 주공 : 화전-춘천

-방어중점 : 춘천

-주저항선 : 소양강 남안

-춘천 : 7연대, 홍천 : 2연대

예비 : 19연대(원주)

7연대 지역

-04:00 적공격 개시

-오후에 소양강 남안진지로 철수

2대대 역도하, 도하 준비중인 적 기습공격

-19연대 춘천, 원창고개 증원

2연대 지역

-04:00 적공격 개시

-08:00 어른리 일대 철수 적 공격저지

20일 6연대와 부대교대

-26일 자온리일대로 철수 2차 저지

-6월 27일 07:00 19연대 홍천지역 전환

-6월 27일 17:00 춘천철수

-6월 29일 큰말-원창고개 지연전후 철수

16 포병대대가 사용한 105mm M3 곡사포

한국전쟁 발발 시 국군이 사용한 유일한 곡사포로 북한국을 춘천 홍원지구 전투에서 격퇴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춘천, 홍천지구 전투 분석

방어계획 및 전투준비

- 진지강화, 간부교육, 포병 화력계획 수립 등
 - 철저한 경계로 초기 정보우위 달성 : 건전한 결심의 기초
- 전투력운용
- 적극적인 공세행동으로 부분적 주도권 장악
- >7연대 2대대 특공대 역도하 공격
- 소부대 지휘자의 현실적 지휘
- >7연대 결사대의 적 자주포 파괴, 19연대 육탄 11용사 공격
- 지형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 소양강,원창/큰말 고개

차후작전에 미친 영향

한국군

- 한강 방어선 형성 가능
- 미 24사단 한국으로의 전개시간 확보
- 전투력 보존(6, 8사단)으로 차후 지연작전에 기여

북한군

- 춘천에서 3일간 지체로 초기작전 계획 차질
- >전략차원 양익포위 실패 :한강 이남에서 2차 양익포위
- >수원/ 원주에서 한국군 퇴로 및 증원 차단 실패

동해안 지구 전투

- >주로 강릉지역에서 이루어진, 국간 8사단이 방어
- <전개과정>

1. 북한군 제5사단 남하 및 동해안을 통해 상륙
 2. 8사단은 총4개 대대만으로 방어(부대 차출)
 3. 불리한 상황, 증원 요청했으나 지원 불가 답장
 4. 강릉 탈환 작전 세웠으나 철수명령 하달됨
 5. 결국 대관령을 넘어 원주를 거쳐 제천으로 철수
- 이후 북한군은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남하

한국군 배치

- 이성가 대령
 - 최초 2개 연대 배치
 - 10연대 : 주무진 북방
 - 26km 38도선 경비
 - 21연대 : 삼척일대
- 공비토벌 작전
- 북한군 배치
- 1경비여단 정면공격

-766 및 945 부대: 정동진 및 임원진 상륙

6월26일 주문진 방어선 돌파

-사단 대관령 철수

6월28일 21연대 역습

-경포대 부근 진출

육본명령에 의해 철수

오씨유 5주차 : 서울함락과 한강교 폭파

- 수도서울 북한군 점령

□ 6.26 13시경 의정부 북한군 점령 → 7사단 창동중심 도봉산-수락산 방어선 구축

□ 미아리 방어

- 5사단, 7사단 : 정릉-미아리-청량리 잇는 방어선 구축
- 6.27 밤 적 공격 재개(폭우) : 적 전차 미아 장애물 통과 서울 도심 진출
- 6.28 01시경 : 적 길음교 폭격, 미아리 고개 진입

□ 북한군 서울 진입

- 6.28 새벽 북한군 서울 점령 지배

1. 의정부 함락

- 6월26일 오후 1시경 의정부가 북한군의 수중에 넘어감

2. 수도를 옮기고 대통령이 피난가다

- 26일 밤 긴급회의로 수도 이전 결정(수원 천도)
- 27일 새벽 3시 이승만 대통령 피난길 떠남 → 일반 시민들의 대책은 강구하지 않음
- 27일 오후 10시 대국민 담화(유엔군 참전 소식)

3. 미아리 방어선

- 정릉-미아리-청량리를 잇는 최후의 서울 방어선
→ 실탄 고갈 및 북한군 편의대의 교란작전으로 무너짐

4. 서울에 진입한 북한군

- 28일 오전 11시 30분 북한군의 서울시내 완전 돌입
- 서울 점령했으나, 남로당원들의 봉기는 일어나지 않음
- 속전속결 전략개시, 30일부터 한강방어선 돌파에 집중

5. 한강교 폭파

- 북한군의 남하를 막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
→ 28일 새벽 2시 30분경, 한강대교 및 3개의 철교 폭파

6. 한강교 폭파의 영향

- 북한군 남하 저지가 목적이었으나, 부작용이 발생함
→ 한강 이북에서 싸우던 한국군 주력부대의 퇴로 차단
(개전 당시 10만 명 → 한강교 폭파 후 2만 5천 명)
→ 수많은 민간인의 희생(약 800여명) 및 큰 충격

- 한강교 폭파

□ 6.28 02시30분 “한강교 폭파”

- 6.28 미아리 방어선 붕괴
- 북한군 전차 서울 시내 출현
- 성급히 한강교 폭파, 전방부대 후퇴로 차단
- 한국군은 전열을 재정비 하기까지 상당한 기간 필요

- 한강교 폭파 전쟁에 미친 영향

□ 6.28 2시30분경 한강교(대교와 3개 철교) 폭파

□ 한강교 폭파 경위

- 육본 : 북한군 서울 시내 진입 2시간 전, 한강교 폭파
- 상황접수 : 6.28 1시 적 전차 미아리 방어선 통과
- 육군참모총장 공병감에게 폭파지시 / 폭파

□ 한강교 폭파 영향

- 한강이북 한국군부대(철수명령 미 접수) 퇴로차단, 병력분산, 장비유기, 피난 못한 서울 시민

충격

□ 한강 폭파사건 재판

- 당시 군사재판 회부 : 공병감 조기폭파 책임, 사형
- 항소심 : 1964년, 상관명령 복종, 무죄 선고

7. 한강 방어선 구축

- 한강이라는 천연 장애물을 이용, 지리적 이점을 살림
(미군 증원 병력 도착까지 버틸 수 있는 희망)

8. 한강 방어선 전투

- 정규 사단이 아닌 급조된 부대, 무기 상황도 열악
- 북한군이 철교를 복구해 전차를 도하 시킬 때까지 많은 시간을 버텨내었다.
→ 북한군 남하 지연 : 미군 참전 시간 확보에 큰 도움

- 한강 방어선 전투

□ 천연적인 장애물 잇점 활용, 미군 지원도착 시간 확보

□ 한강 방어선 전투

- 전투수행 위해 시흥지구전투사령부 편성
- 철수 병 500명 단위 혼성대대 편성, 혼성 사단 급조
- 가용한 인원, 장비 총 동원 적 전진 3일 이상 지연

□ 맥아더 원수와 어느 병사와의 대화

- 6.29 영등포 지역 방문 : 전황과 파병 필요성 검토
- 개인 호 진지를 지키는 병사에게 “자네는 언제까지 그 호를 지키고 있을 것인가?”
- 병사 : “군인은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 저는 상관이 철수 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제가 죽는 순간까지 이곳을 지킬 것입니다.”

□ 6.28~7.3 6일동안 한강고수, 부대재편, 시간확보

- 한강 방어선 형성

□ 50.6.28~7.4

□ 한강 방어선 형성

- 서울 동부 광나루에서 한강을 따라 김포반도 북단에 이르는 한강 남단

□ 목표 : 유엔 지상군 도착 시 까지 현 전선 고수 방어, 시간 획득

- 한강 방어작전 경과

- 6.28일 : 한강교 폭파로 병력 분산 철수
- 6.28~29 : 철수병력 집결(시흥)
- 시흥 지구 전투사령부 설치, 부대 재편성 한강방어선 구축
- 6.29~7.2일 한강 방어선 고수
 - ※ 6.29 : 맥아더 원수 한강선 방어 전황과 국군 전력 시찰
- 7.3 : 적 전차 노량진 도하 한강 방어선 붕괴 / 육본 지연전 실시 명령 하달
- 7.4 : 육본 지휘소 대전이동

- 한강 방어작전 분석

- 북한
 - 28일 '서울점령' 후 3일간 지체로 "수원 북방에서 한국군 병력 격멸", "유엔군 참전 전에 전쟁 종결", 기도 차질
- 한국군 : 1주간 시간 획득으로 유엔군 참전 기능

9. 김포 반도 전투

- 군사적 중요성이 큰 지역(영등포와 불과 40km)
- 〈전개과정〉
 - ① 김포지구 전투사령부 편성(김포의 중요성 고려)
 - ② 한강의 조수 간-만조 현상은 북한군 도하에 발목
 - ③ 도하해 온 북한군 제 6사단에 맞서 용감히 저항
- 북한군 진격 3일 지연, 2개 사단 규모의 한강 도하 철수 시간 확보

10. 육군 총 참모장 교체

- 채병덕 소장 : 서울 사수 계획 주장 초기작전 실패 명분으로 1950년 6월30일부로 육군 총 참모장의 직위에서 해임
- 영남지구 전투사령관으로 임명됨
- 정일권 준장을 소장으로 진급 시킨 후 새로운 육군 총 참모장으로 임명

- 한국군 초기작전 분석

- 국가 안보 전략 수립 미흡
 - 동원령 미선포, 초기 전쟁 사실 미홍보로 국가 혼란 가중
 - 전쟁지도부 미국 지원만 요구, 한강교 조기 폭파
- 북한의 남침 조기경보태세 등 미흡
 - 북한군 T-34전차 사진 무시 : 부대교체 징후로 판단
- 국군수뇌부의 비현실적 전황분석과 조치
 - 전면남침사실 인지에 많은 시간 소요
- 축차적인 병력투입 전투력 소모
- 소부대 지휘자들의 헌신적인 부대지휘
 - “충체적인 위기관리 능력 부재 → 기습충격파 증폭”

- 전쟁초기 3일간의 혼란

□ 전쟁 지도 체제(육본 / 국방부)

- 대통령(이승만) - 국방장관(신성모) - 육군 총 참모장(채병덕)
 - 해군 총 참모장(김영철)
 - 공군 총 참모장(김정열)

※ 장군 10명(소장 3명, 준장 7명), 대령 24명

- 전쟁초기 3일간의 혼란

□ 채병덕 육군참모장(총사령관)

- 1915.4.17.일생, 평양출신
- 1937.6.29. 일본 육사 졸업(49기)
- 1945.8.15. 일본군 소좌(소령) / 병기 장교
- 1946.1.15. 군사영어학교 졸업
- 1948.8.15. 국방부 참모총장(33세)
- 1949.5.9. 제 2대 육군 총참모장
- 1950.4.10. 제 4대 육군 총참모장
- 1950.7.27. 하동전투에서 전사

□ 이승만과 신성모의 북벌론

선창		합창		반응(?)
• 이승만	→	• 채병덕	→	• 미국의 반신반의
• 신성모		• 군수뇌부		• 소련/북한의 쾌재

※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북침설의 논리 제공 / 미국의 군사원조 삭감

□ 전쟁 발발

- 1950.6.25. 04시
 - 육본 상황실 : 현 용산 우체국 근처
 - 24일 24:00 ~ 25일 02:00 채 총장 귀가
 - 06:00, 전군 비상 발령 / 장병 복귀 지시
 - 신성모 : “영국식으로 일요일에는 전화 일체 사절”, 비서실장 : 신동우 중령
 - 07:00, 채 총장, 장관공관 방문 / 비상동원령 재가
- 14:00 : 대통령 주관 긴급국무회의
 - 신성모 : “반격감행, 의정부 탈환, 1주내 평양 탈취가능!”
 - 채병덕 : “국지도발, 반격, 3개 예비사단 투입”
- 6.26일 새벽
 - 의정부 축선 2,7사단 반격
 - 반격실패 : 7사단 퇴로차단
 - 10:00, 군원로 회의 “북진하니 안심하라!”
- 6.26일 11:00, 비상 국무회의
 - 채총장 : “3일내 평양점령”
 - 13:00 : 북한군 의정부 점령

- 창동방어선 / 미아리 방어선 와해
- 27일 11:00 육본회의
 - 서울 철수 / 한강교 폭파 결정 ※ 전방부대 및 서울시민 피난문제 미언급
 - 13:00 : 육본 → 시흥으로 이동
 - 18:00 : 육본 시흥 → 서울 재 이동(미군 참전 통보)
 - 채총장 : “28일 B-29 미폭격기 100대 지원가능!” 직접홍보
- 27일 24:00
 - 북한군 전차 미아리 방어선 통과
 - 28일 01:45, 북한군(2대) 전차 돈암동 도달
 - 02:30, 한강교 폭파 ※300~800명 폭사 / 전투장비 유기
 - 28일 아침, 북한군 서울 완전 점령
 - 사실상 한강이북 한국군 2/3이상 전사 및 실종

□ 대통령 주요 일정표

- 6.25(일)
 - 09:30 “프”여사 병원출발 배웅
 - 10:00 “남침보고”(비원에서 낚시 중)
 - 11:00 경무대 복귀 / 국무회의 소집 지시
 - 14:00 비상 국무회의
 - 17:00 맥아더와 통화 / 미국 지원요청
- 6.26(월)
 - 10:00 군사 경력자 회의
 - 16:00 특별열차 대기지시(“프”여사)
 - ※ 국무총리 상황호전 보고
- 6.27(화)
 - 03:00 피난출발(서울 → 대구)
 - 10:00 대구도착
 - 12:30 서울향발
 - 15:00 대전도착(충남도지사 공관유숙)
 - 22:00 대국민방송 “UN군 참전한다. 국민들은 안심하라!”
- 6.28(수)
 - 02:30 전쟁상황보고
 - 08:00 워싱턴, 맥아더 지원 요청
- 6.29(목)
 - 수원이동, 맥아더 접견, 맥아더 “한강방어선”이동
- 6.30(금)
 - 워싱턴에 지원요청
- 7.1(토)
 - 03:00 목포로 출발(경북지역 게릴라 우려)
 - 16:00 목포 → 부산(해군함정)

- 7.2(일)
 - 11:00 부산 도착(19시간 소요)
 - 11:15 경남도지사 공관 도착
- 7월 9일까지 대통령 위치 극비사항으로 비공개

□ 총참모장 주요 일정표

- 6.25(일)
 - 08:00 비상소집 명령 하달
 - 09:00 1사단(수색)방문
 - 10:00 7사단(의정부 : 1차)방문
 - 14:00 국무회의 출석, 7사단(의정부 : 2차)방문
 - 15:20 17연대(웅진) 해상철수 명령

6(춘천), 8(강릉)사단 통신두절 중 통화(13:00 / 15:00)
- 6.26(월)
 - 01:00 7사단 방문(3차)
 - 09:00 7사단 방문(4차)
 - 10:00 군사 경력자 회의 참석
 - 11:00 비상국회 출석
 - 신성모 장관 : “3~5일내 평양 점령”
 - 채병덕 총장 : “의정부 적 격퇴”
 - 14:00 7사단(창동)방문(5차)
- 6.27(화)
 - 01:00 비상국무회의 / 비상국회 출석
 - 신성모 장관 : “정부 수원 철수 가능성 제의”
 - 채병덕 총장 : “백두산에 태극기 꽂겠다 주장”
 - 05:00 7사단(창동)방문(6차)
 - 07:00 국방부 수뇌회의 참석
 - 신성모 장관 : “정부 철수하니 알아서 해라”
 - 채병덕 총장 : “서울 사수 독자적 다짐”
 - 11:00 육군 수뇌회의, “서울 철수 발표”
 - 13:00 육본 시흥으로 철수
 - 14:00 신성모 장관 수원으로 철수
 - 18:00 육본 다시 용산 복귀
 - 19:00 미아리 전선 방문(7차)

- 비상국무회의

□ 1차(6.25 14:00~15:15)

- 대통령 : 제각기 임무를 다하라! 각료 : 미국무성, 국방성, 맥아더에게 지원요청

□ 2차(6.27 01:00)

- 수도서울 사수, 이진문제 토의, 수원으로 천도 결정
- 신성모 국방장관 : 낙관적인 전황 브리핑, 서울시민 철수문제 미결정

- 국회 수도서울 사수결의
 - 2대 국회(1950.5.30. 총선)
 - 무소속 126 대한민국민당 24 민주국민당 24석등 총 210석
 - 6.26일 국회소집 결의사항
 - 예산 구매됨 없이 무제한 국방비 지출
채병덕 총참모장 : 3일내 평양 탈환 가능
 - 서울사수 결의문 채택
210명 의원 중 62명 서울 잔류 / 27명 남북 피살

- KBS 방송국
 - 당시 한국 유일의 방송국(정동위치)
 - 6.25 07:00 첫 방송 “10만 국군 건재하니 국민 염려마라!”
 - 6.26 08:00 국방장관 “국민은 군을 믿고 생업에 전념하라!”
 - 6.27 06:00 국방부 발표 “정부부처 수원으로 이전”
수시간 후 정부환도성명 취소방송
 - 6.27 하오 방송국 좌익분자 시설장악 기도
한국군 1개 소대 출동, 좌익분자 도주
 - 6.27 22:00 “한국군 건재하니 서울시민 안심하라”
창동북방 치열한 전투 중 / 서울에서 포성, 총성 시민들 청취
 - 6.27 24:00 KBS에서 공식 방송종료
 - 6.27 24:00 ~ 6.28 07:45 “연희 송신소” / 음악방송 지속 출력
송신소 직원 방송국 철수 상황 미인지
 - 6.28 03:00시경 북한군 방송국 장악

- 대통령 1차 피난(서울~대구~대전)
 - 6.27 03:00, 경무대 출발
 - 북한군 서울 진입 24시간 전
 - 동반 인원 : 영부인, 비서1, 경호원2명
 - 국회 각료, 육본 미통보(각 기관별 알아서 서울 철수)
 - 6.27 12:00시경 대구도착 / 서울로 북행 재결심
 - 6.27 17:00시경 대전도착 / 충남 지사공관 유숙

- 대통령 2차 피난(대전~이리~목포~부산~대구)
 - 7.1 03:00 대전출발
 - 7.1 04:00 이리도착 / 8시간 대기
 - 7.1 12:00 이리역 출발
 - 7.1 14:00 목포역 도착 / 해군기지 이동
 - 7.1 16:00 소해정 승선 / 목포 출발
 - 7.2 11:00 부산도착 / 경남도지사 공관 유숙

- 초기전투의 교훈

<실패요인>

1. 일방적인 초기전투 패배는 예견된 일(병력배치 미흡 및 병력 휴가 등)
2. 북한군의 기습 남침에 대처하는 정부의 실책(이승만 대통령은 피난)
3. 군 수뇌부의 근거 없는 자신감

<활약상>

1. 열세에도 불구하고, 용감히 싸운 장병들의 활약
2. 6사단의 활약으로 북한 남침 계획에 큰 타격

- 초기작전 연구관점

- ☐ 한국군 방어계획의 문제점 인식
- ☐ 한국군 전투준비
- ☐ 춘천, 홍천지구 전투의 의의
- ☐ 초기 작전을 방어작전 측면의 분석

오씨유 6주차

□ 북한군의 서울 3일 지체

- 북한군의 서울에서 3일간 지체는 한국군에 도움

<지체의 이유 추측>

1. 남로당원의 봉기로 한국의 자연 붕괴를 예상
2. 북한군 제2사단이 먼저 수원을 차단하길 기다림
3. 한강을 건널수 있는 도하장비 부족

--> 서울 3일지체는 북한군의 결정적인 전술적 실책으로 판단

남로당과 빨치산

- 빨치산(Partisan)어원
 - 프랑스어의 “파르티” : ‘도당’, ‘동지’
 - 한국: ‘인민유격대’, ‘인민해방군’
- 한국 빨치산 유래
 - ‘ 46. 10. 대구폭동잔당
 - >태백산 소백산 야산대
 - 48.8.15 대한민국 건국
 - 10.19. 여순 10.19사건
 - 10.25 반란군 지리산 입산
 - 11월 북한 유격대 남파(2400명)
 - 49.4.9 김지회/홍순석 사살
 - 50.10, 북한군 15,000여명 지리산 입산
 - 12. 남부군 결성
 - 53.9, 이현상 사살(지리산 빗점골)
 - 54-55, 빨치산 잔류세력 준동
 - 63.11.12, 최후의 빨치산 생포(정순덕)
 - > 1984년 석방/ 2004년 사망
- 빨치산 활동
 - 후방지역 제 2전선형성
 - * 국군. 경찰 수개사만 고착
 - 남한전역 ‘고정간첩’과 연계 투쟁
 - > 생포 국군, 경찰관, 비협조주민 잔인한 학살
 - *대둔산 주변 거주 주민 증언/공포분위기 조성
 - ‘해방전쟁’ 빙자 공공연한 양민 재산약탈
- 105mm M3 곡사포 (16포병대대가)
- 그 당시 최고의 포

병과의상징 [1/2]

* 포병은 무엇을 하는 병과인가?

- 대포, 로켓 / 미사일을 사격하여 적 부대 및 시설을 파괴
 - > 아군부대의 기동 및 유리한 작전수행 여건 조성
- 화력 위주의 단독 작전 활동[화력전투]
 - > 적 중요 표적 타격, 아군에 유리한 전쟁 여건 조성

* 포병훈

- 포병훈 : “알아야 한다”
- 창설당시 포술에 대한 생소함과 난해성으로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라는 개척자로서의 배움에 대한 의지를 표현

*곡사화기 사격원리

관측소(op)에서 관측한 내용을 보냄 -> 사격지휘소 -> 포진지

* 포병임무수행절차

1. 관측, 사격지휘, 전포, 통신(유무선), 측지(측량)

관측-사람의 눈의 역할로서 적을 먼저 보고 사격을 요구(적 위치 관측)

사격지휘-사람의 두뇌의 역할로서 사격제원을 계산하고 지시/통제(사격제원산출)

전포-사람의 주먹의 역할로서 포탄사격을 통해 적을 파괴(포탄사격)

*관측, 사격지휘, 전포는 상호작용으로 유지되며 통신과 측지는 항상 유지되어야함

포병의 중요성

□ 산악지형 70%이상, 전차 기동 제한 그러나 포병은 곡사화기로 제한없이 운용 가능

- 전차위주의 기동보다는 포병위주의 화력이 중요

□ 과거는 기동부대 중심의 전투수행, 현대/미래전은 선 정밀화력전, 후 기동전으로

“정밀화력전, 적 중심마비, 최소 희생에 의한 승리”의 개념으로 변화

- 과거 전투 수행 개념 : 기동부대 위주
- 현재/ 미래 전투수행 개념 : 화력이 결정적 전투수행
- 현재 운용중인 화포

1. KH 178 견인 곡사포 (한국, 105mm)

- 한국 포병의 기준 포 역할
- 사정거리 : 고 폭탄 11.3km (RAP탄 18km)
- 최대 발사속도 : 10발/ 분

2. KH179 견인 곡사포 (한국, 155mm)

- 사정거리 : 보통 탄 22km (RAP 탄 : 30km)
- 최대 발사 속도 : 4발 / 분 (지속 발사속도 : 2 발/분)
- 야전 포병의 주력이며 CH-46헬기로 수송 가능
- NATO 155mm 탄약과 한국과 신형 탄약 사용 가능

3. K55 자주포 (한국, 155mm)
 - 현대전에서 기동성, 생존성 자동사격지휘능력 갖춘 우수화포
 - 차체 : 특수 알루미늄 + 무한궤도 -> 산악/ 늪지대 기동성 우수
 - 사정거리 : 22km (RAP 탄 : 30km)
 4. K-9 자주포 (155mm)
 - 자동사격 통제장치 및 신속한 초 탄 발사가능 (이동 시 1분 이내)
 - 자동 장전 시스템 : 15초 이내 3발 사격 가능
 - Base Bleed 탄 사용 시 사거리 40km 연장
 - 무게 50톤, 운용요원 5명
 5. M109 파라딘 자주포 (미, 155mm)
 - 1973년 개발, 현 미국 155mm 자주포의 주 전력으로 활동
(포 탑 내 자동 사격 통제장치 탑재)
 - RAP탄 사용 시 최대 사거리 : 30km
 6. Crusader 자주포 (미국)
 - 미국의 차세대 자주포로 개발하고 있음
 - 최대 사거리 : 54km, 발사속도 : 10~12발/분, 탄약 적재 : 60발
 - 승무원 3명, 자동 장전 및 위성 항법 장치 탑재
 7. 북한 152mm 자주포
 - 최대 이동 속도 : 55km - 항속 거리 : 450km
 - 최대 사정거리 : 17.23km - 최대 발사 속도 : 6~8발 / 분
 - 취약점 : 사격 시 차체 유동으로 정확성 부족
 8. 북한 170mm 자주포
 - 최대사거리 : 54km - 최대 발사 속도 : 1~2발/ 분
 - 총 보유 대수 : 700문 (서울 근교 100문)
 - 취약점 : 장갑 비보호->인원 노출, 포 상부에 연료 통 노출->VT 신관으로 제압가능
수동 동작, 사격 속도가 느림
 9. 북한 240mm 방사 포
 - 최대 사거리 : 60km - 발사 속도 : 22발/ 35초 (재장전 시간 : 2 2 초)
 - 방사 포 2,800여문 -> 서울 일대 10,000발/분
 - 취약점 : ① 자체 방호능력 부족, ② 후 폭풍/먼지 발생 -> 위치노출
③ 위장말 사용 불가 -> 쉽게 탐지, ④ 갯도 진지 내 사격 곤란
- ※ 세계최초의 전차(마크-1 전차)
- Mark-1 전차 (수컷형) , Mark-1 전차(암컷형)
- ※ 전차(T-34, Tiger 전차)
- T-34 전차(소련) , tiger 전차(독일)

* 교량 장비 발전 과정

1. 최초
 - ※ 기원전 500년 경 페르시아 “다리우스”가 뗏목 연결 부교 건설
 - ※ 1809년 나폴레옹 최초 공병부대 편성 “다뉴브 강” 도하
2. 군용 교량장비 등장

- ※ 1981년, KARL BRIAGO 교량 장비(오스트리아 군)

3. 2차 세계 대전

- ※ 전차의 등장으로 교량 장비의 진화

- ※ 영국, Donald Bailey 장간 조립 교 개발

4. 폰 툰 형 부교 개발

- ※ 1950년 대 (미국), 고무 튜브 연결 부교 설치(60톤 급)

※ 주요 교량 장비 및 특성

개발국가	장비 명	길이(m)	통과하중(톤)	가설시간(분)	제 원
미국	M60A1 (AVLB)	13	60	5	M60A1 전차에 탑재
	M4 T6	120	60	140	1개 소대 병력 소요 (부교/문교)
	MAB	150	60	14	자주식 교량장비 (부교/문교 가능)
영국	Chieftain (AVLB)	25	60	5	현 교량 전차 중 최대 길이 전차 엔진 사용, 유압식
	장간 조립 교	25	55	120	소대병력 소요 (후방에서 사용)
	간편 조립 교	31	60	60	고장력 알루미늄 합금 사용, 경량화
독일	Biber (AVLB)	22	60	5	레오파트 전차 탑재, 기동성 우수
	S-Bridge	35	60	120	문교/부교로 운용. 합금으로 제작
러시아	MTU-20	20	60	8	T-55 전차 탑재
	TMM	42	60	45	교량 4개 경간 조립(10.5m)
	PMP	227	60	50	연결형 부교 및 문교 형태로 운용

- 장간 조립교 (Bailey Bridge) : AVLB : armored Vehicle Launched Bridge 간편함
- 간편 조립교 (MGB) : Medium Girder Bridge

■ 교량 장비의 분류

- 문교 : 인원/ 장비를 도하 시킬 수 있도록 부유물 상판을 설치하고 동력 장비를 설비한 수상 운반 체계
- 부교 : 강 건너로 장비/ 병력을 보내기 위하여 부유물에 의하여 가설된 임시 교량

구분	용도	종류
강습용	수상가설	자주 문교(MBA)
	공간가설	교량 전차(AVLB)
전술용	공간가설	간편 조립 교, 장간 조립 교, 반 자동식 부교
	수상가설	문교, 도보 교, 공기 부유식 CL60교량
	보조장비	잠수장비, 진입/진출로 장비

- 소련 스탈린의 6.25 전쟁 개입설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에 발 묶이면 유럽에서 사회주의를 강화할 시간 벌고 세력 균형에서 이득 ”

- 스탈린이 체코슬로바키아 대통령에게 보낸 극비 전문

“ 미국에게 (한국전 참전을 위한) 안보리 다수결의를 쉽게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 미국 정부가 동북아에서의 개입을 지속하고 중국 또한 한반도에 말려들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올지

생각해보자”

“유럽에서 사회주의를 강화할 시간을 벌고 우리에게 국제 세력균형에서의 이득을 안겨줄 것 ”

□초기작전 분석(한국군)

1. 전쟁준비 소홀

- 남북 군사력 격차 심화
- 전투준비태세 미비 (비상해제, 경계병력 1/3외박, 훈련부족)
- 구체적 방어 계획 미수립

2. 적 접근로 대비 미흡, 포병 6개 대대 분산배치

3. 전투수행 능력 미숙 (병력 축차투입, 한강교 조기파괴)

4. 작전지역 상대적 불리 (중격실, 서울 45km)

□초기작전 분석(북한군)

1. 일점 양면전술 (정면공격 + 측 공격 병행)

2. 정규 + 비 정규전 배합, 보 . 전 . 포 협동

3. 전투력 분산운용 (전차 분산운용)

4. 전과확대 및 추격시기 상실 (서울 탈취 후 3일 지체)

5. 융통성 결여

★ 북한군의 전술적 실패

- 소련의 '라주바예프 보고서' 에 따르면 소련고문단이 전쟁작전계획 작성했기 때문에 북한군 지휘관들은 융통성을 발휘하기 힘들었다.

- 사례) 북한군 전차가 도하지점을 찾지 못하여 방황 지휘관들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

- 지체의 근본적 이유 : 북한군의 전술적인 실책

- 소련 스탈린의 고의적 개입설에 대한 추가적 연구 필요

오씨유 7주차 - 유엔군 참전과 지연전

안전보장이사회와 UN군 창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최(1차 : 6.26, 2차 : 6.27)
- 맥아더 장군 전선시찰, 미지상군 투입건의 : 6:29
- 미 지상군 투입 결정 : 6.30
- 유엔 안보리 > UN군사령관 미국에 위임 : 7.7
- 맥아더 UN군사령관 임명 : 7.8

미군의 참전이유

- 봉쇄전략 위협(한국 공산화 > 일본, 기타국가)
- 공산화 방관시 인접자유국가 저항의지 상실
- 소련의 팽창주의 저지(3차대전 도화선 사전제거)
- UN의 기조 및 창설이념 유명무실 방지

한국군의 전력회복 과정

- 한강방어선 전투(6.28~7.4)
- 7월 3일 파괴된 한강 철교와 인도교를 북한군이 보수, 전차와 병력이 다리를 건너 남진시작
- 7월 4일 시흥에 있던 '시흥지구전투사령부' 수원을 거쳐 평택으로 철수
(급조된 혼성부대지만 북한의 남하속도를 최대한 늦춤 부산된 한국군의 전력을 수습할 시간제공 한국군과 유엔군이 안정적으로 연합)

한강방어선 전투 이후 (7월4일)

- 한강방어선 붕괴 이후 수원으로 집결된 한국군들도 부대별로 평택으로 철수
- 주일미군 중 큐슈에 주둔해 있던 미 24사단의 전선배치
(예하 21연대 1대대 스미스부대 선발대로 투입)
- ✓ 오산, 안성, 평택을 연하는 선에 배치
- 평택-제천-울진을 연하는 선에서 유엔군과 한국군의 연합전선을 구축
- ✓ 한국군의 단독작전 > 유엔군과의 연합작전

한국군의 전력회복(7월5일)

6개의 급조된 혼성사단으로 구성된 시흥지구전투사령부

(제 1,2,3,5,7,수도사단)

▶ '1군단 사령부' (수도, 제 1,2사단) 창설

#7월 14일 상주에서 제 6, 8사단으로 구성된 '2군단' 창설

▶ 2개 군단 5개 사단으로 개편

최초의 군단편제, 전투력 또한 전쟁 직전 수준으로 회복

한국국의 작전지휘관 이양(7월7일)

-맥아더 원수의 유엔군 사령부 창설 이후 연합국의 병력들이 유엔군으로 편성

>맥아더 원수의 지휘를 받음

반면에 한국군은 유엔군에 배속 안됨

-원활한 한국군 지후를 위해 7월 14일 한국군 전작권을 맥아더 원수에게 이양
>지금까지 지속됨

한국군 작전권 이양(계속)

-1950.7.13일 기준 병력

미지상군 : 1.8만

한국군 : 5.8만

-7.14일, 이대통령 맥아더에게

작통권 이양(서한형식)

UN군, 한국군에게 적극 각종 물자지원

부산항 1일20여척 / 1만톤 화물하역

-김일성, 스탈린에게 잠수함으로 부산항 봉쇄요청

미지상군 한국전 참전

-최초 참전부대 : 스미스 기동부대(대대급)

50. 7. 1. 08:00, 사단장신고(일본)

50. 7. 4, 오산-수원도로 근처 전개

50. 7. 5. 08:16, 미군과 북한군 최초격돌

50. 7. 6 미군 571명중 181명 전사 및 실종

북한군과의 첫 전투에서 미군의 참패 !

- 스미스 부대의 역할

북한군 수원까지 240km전개 / 진격 지연

수원 ~ 대전간 북한군 약 10일간 지체

미 공군의 맹폭격

미 24사단 전 병력 대전집결 가능

미군 참전으로 한국군 사기 고양

죽미령 전투의 과정

-7월 5일 오전 7시경 수원부군에서 북한군 제 4사단의 움직임을 목격함.

-스미스 부대는 접근해 오는 적의 전차를 기다렸다가 적합한 장소에서 기습공격을 하기로 함.

-대전차고폭탄 발사를 시작으로 적 전차에 포탄을 퍼부었으나 멈추지 않고 북한군은 스미스 부대의 진지를 공격함

-적의 전차 뒤를 따르는 보병부대와 싸웠으나 중대가 위험에 처하자 철수를 명령함.

미국과 북한군의 반응

<미국의 반응>

-북한의 남한침략은 소련과 중국이 북한을 사주하여 미국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미국은 죽미령 전투를 겪고 난 이후, 비로소 북한군에 대한 제대로 된 전력 파악을 하였다.

<북한의 반응>

-북한군은 미국의 참전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당황.

-미군의 참전을 알고난 후 전쟁계획을 '빠른 공격'으로 수정하는 등 미군에 대한 투지를 불태웠음.

미국상군 한국전 참전(계속)

-미 24사단 34연대 격돌(평택, 천안)

미측 북한군 전력 재평가

북한군 T-34 탱크 격파불가 (2,36"로켓포)

미 34연대 마틴 대령 전사 : 천안 추모공원

-전의, 조치원 전투

피난민 활용 미국 대전차 지뢰제거

북한군 게릴라 최대 활용

개미고개의 유래

미군 조치원 금강성으로 후퇴

-천안전투

7월 7일, 천안부근에 미군의 50구경 중기관총을 실은 트럭이 버짚단으로 위장돼 있다. 중기관총의 사수들이 위장 매복하여 적군의 남하를 감시하고 있다.

-전의에서 미군전차 최초교전

천안 남부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M-24탱크 미국 탱크는 7월 11일 전의전투에서 처음으로 적 탱크와 교전함으로 썸 비로소 제구실을 했다.

-전의를 통관하는 M24전차

한국군은 중부산악지역의 험준한 지형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지연작전을 실시함으로써 북한군의 남하를 순조롭지 못했으나, 경부축선의 전의, 조치원에서의 미군이 지연작전은 실패하고 말았다.

-전의 교량거부 준비

조치원에서 고량폭파를 준비하고 있는 미군 공병대의 모습이다.

지연전

-한미 연합전선 형성/ 국군 재편성 (7.4~6)

미국 참전으로 한국군 철수부대 안정

시흥사 해체 및 제 1군단 창설 (수도, 1, 2, 사단)

7.5 방어선 : 죽미령 (Smith TF) - 죽산(6사단 19연대)

무극리(6사단 7연대)- 충주(6사단(-)) - 제천(8사단)

울진(23연대)

-경부축선 / 차령산맥선 지연전(7.7~14)

한국군 담당지역 축소로 효과적인 지연전 가능(공세적 행동 병행)

7.7 방어선 : 천안~진천~음성~충주~단양~울진

주요전투

경부축선 : 천안, 조치원 전투

차령산맥선 전투 : 진천, 음성 / 괴산, 충주 / 수안보, 제천 / 단양전투

-금강 및 소백산맥선 지연전 (7.14~25)
한국군 지휘권 이양 / 한국군 제2군단 창설 (7.14)
7.14 방어선 : 금강산 - 문경 - 죽령 - 평해
한국군 전선 조정 (7.24)
제 1군단(안동), 제2군단(함창)
제3사단 재창설 영덕 투입
주요전투
금강선 전투 : 공주 / 대평리, 대전지구, 영동/김천 전투
소백산맥선 전투
화령장지구, 이화령/함창, 죽령/안동, 영해/역덕 전투
7.25 방어선 : 영동~상주~함창~예천~안동~영덕

공주~대평리 전투
-기간 : 50,7,13~7.16
-장소 : 공주~대평리
금강일대
-부대
적군 : 북한군 제3,4사단, 예하부대
아군 : 미 제 24사단 34, 19연대

-지형적 가치
북한군측 입장
- 금강 및 소백산의 천연 장애물을 이용하여 강력한 저지선을 형성하기 전에 신속히 돌파하여대전을 점령하기 위한 중요지형

미군측 입장
-금강과 소백산맥을 연하는 방어선은 대전확보측면에서 볼 때 절대적으로 중요한 천연 장애물임
-금강을 사이에 두고 피, 아 대치할 경우
공주-유성간 도로를 적의 감제로 방어시 취약함

금강 방어선 전투가 벌어진 금강에 대해서 알아보기!

금강은?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에서 발원하여 충청남북도를 거쳐 황해로 흐르는 강으로 강경에서부터 충청남도
-전라북도 도계를 이루며 군산만으로 물이 흘러 들어감.
-총길이 394.79km, 유역면적 9,912.15km² 인 강,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긴 강, 옛날부터 농업생산과
해상교통의 발달, 방어에 유리한 지형으로 일찍이 공주, 강경, 부여등 고도와 옛 상업도시가 발달함.
-금강=호강(물살이 잔잔해서)=백강
-금강 상류에는 대청댐 위치, 하류에는 금강 하구 독이 위치 해 있는 국가하천.

공주 및 대평리 전투

유엔군의 두가지의 불리한 요인 ?

1)전투력 차이

-각 연대마다 병력은 단지 2개 대대씩만 편성되어 있었음.
-즉시 전투에 투입이 가능했던 부대는 딱 절반인 3개 대대 뿐이었음.

2)넓은 방어 범위

-애초에 보유하고 있던 병력이 적에 비해 현저히 부족했음/
-가용병력이 겨우 절반뿐인 상황에서 정면 30km가 넘는 넓은 범위를 담당함.
-북한군은 유연한 전술사용.

-결과

미국은 서부전선의 미 제 24사단이 연이어 패배하자, 1개사단의 증원만으로는 북한군을 막아낼 수 없음을 인지하고 추가로 미 제 25사단과 미 제 1기병사단의 증원을 서두르게 됨

-금강전투

천안, 조치원전투에서 패한 미군은 금강이라는 천연장애물을 이용하여 북한군을 지연하기 위해 금강에서 방어를 실시했다.

-조명탄으로 밝아진 금강교

북한군의 야습을 경계하기 위하여 미 제 34연대가 쏘아 올린 조명탄으로 대낮같이 밝아진 금강교의 모습

-금강의 야간조명탄

야음을 틈탄 적의 도하를 방지하기 위해 금강교 위에서 터진 조명탄, 8군사령관 워커중장은 적을 금강선에서 저지하라는 명령을 미 제24사단에 시달렸다. 그러나 그것은 사태에 대한 지나친 낙관이었다.

-1950년 7월 13일, 금강교 폭파

금강전투는 미 제24사단에게 치욕적인 전투로, 많은 병사와 장비를 잃었다.

이들은 금강교를 폭파하는 등 최선을 다해 지연작전을 폈다.

-금강 남안 제방의 미19연대

이들은 1950년 7월 14일 금강교 북쪽에 집결한 북한군에게 대항하여 집중 사격을 퍼부었다.

-미군포병의 집중사격

금강교 북쪽에 집결한 북한군에 대해 미국포병이 집중사격을 퍼붓고 있다.

-지연전을 위해 폭파된 금강교

공주북측의 금강교를 폭파함으로써 지연작전을 폈는데 이 사진은 금강교가 폭파된 후의 광경이다

-북한군을 M1으로 제압하는 미19연대

1950년 7월 15일 대평리 정면에서 금강 북안의 북한군을 M1(81밀리 박격포)으로 제압하는 모습이다. 미 제 24사단은 금강방어에 전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붕괴되어 7월16일 대전으로 후퇴할 수 밖에 없었다

대전의 25시(7. 1일 전후)

-대전 형무소 좌익 수감자난동(여순반란군 2,000여명)

대전시내 한국군병력전무

형무소장 외 전 직원 도주

수감자 탈옥실패(서울형무소 경우 북한국접수 / 죄수석방)

-정부 계엄령 선포(50.7.8)

단, 전남, 북 지역 제외

대전전투

-기간 : 1950.7.18.~20

-장소 : 금강선 이남 대전 시내

-피.아 부대

-북한군

제 3보병사단(7, 8, 9연대)

제 4보병사단 (5, 16, 18연대)

제 105 전차사단

-아군 (미군)

미 제 24사단(딘 소장)34연대

제 19연대 2대대

제 21연대 1대대

전투경과

피. 아 작전 계획

-북한국

7월 16일 금강선 돌파 후 제 3사단은 제 105전차 사단의 지원하 경부 국도를 따라 대전 서북쪽에서 공격

제 4사단은 논산도로를 따라 대전 서남쪽에서 공격하되 18연대는 남쪽 금산로로 우회 퇴로 차단

-아군(미군)(18일 워커 중장 방문)

미 24사단(딘 소장) 대전지역을 방어 적의 공격을 20일까지 저지 / 지연

제 21연대 1대대는 대전 동측방 방어와 34연대 철수로를 확보하고, 19연대 2대대는 34연대에 배속 운용
사단에서는 포병과 수색중대 지휘배속

- 미 24사단장

- 딘소장

- 1899년 8월 1일생, 치과의사 아들

- 미 육군 사관학교 지원 낙방

- 1923년 보병 소위로 임관

- 1940년 소령 진급

- 1941년 중령, 42년 대령 진급

- 1949년 5월 미24사단장으로 취임

- 1950년 7월 한국전에 최초 투입

- 대전지구전투에서 철수중 길을 잃고 북한군의 포로가 되었다가 휴전후 포로교환 1순위로 석방됨

(53.9.4)

-미24사단의 대전혈투

- 7.19일, 북한군 3개사단 대전 포위 / 총 공격
- 7.20, 04:00, T-34 3대 충남대 > 시내집입
- 미군 최초 3.5 로켓포 로 2대격파
- 딘 소장 짚차로 추격 1대 추가격파
- 7,20 오전, 24사단 와해 / 사단장 실종
- 16:20, 미구출대 대전역 도착 / 수색
- 사단장 구출실패(미군 32명 몰살)

전투결과

미군의 총격과 수모

- 50.6.30 미 자상군 투입 결정
- 50.7.5 미 24사단 오산 전투 투입 우린 미군이다 “어흥”
- 미24사단장(딘소장) 전사(행방불명)
- 최초 미 24사단 전투력

병력 : 15956명, 차량 : 4,773대

-오산전투- 대전 전투(17일간) 후

병력 8,660명, 장비 : 60%

-미 24사단 대구부근에 재편성

사단장 재취임(처치 소장)

-미 24사단장의 회상

제 1기병사단 영동 전개시간 지연

최후까지 대전에 남아 지휘한 이유

- 제 34연대와 그 배속부대원들의 사기를 고무시키기 위함
- 한국군 지휘관들에게 지휘의도 시범 한국군의 전투의지 고양
- 북한군의 전투수행 방법을 현장에서 직접 관찰하고 대응하기 위함
- 접차 한두규 구속시 탄원서 제출

중. 동부 전선의 지연전

1. 중, 동부 전선의 형성

- 7월 5일, 미 제24사단이 서부전선에 배치됨
- 한국군이 중, 동부 전선 담당

(서쪽 : 수도사단, 제1, 2사단 / 동쪽 : 제 6, 8사단 /동해안방면 :제3사단)

2. 진천, 청주지역 전투

- 7월 8일, 북한군 제2사단의 진천북단 공격 : 진천-청주를 지나 대전으로 진격 목적
- 진천북단에서 후퇴하여 남단으로 이동, 문안산-봉화산의 방어선 구축
- 9일 아침, 북한군 공격 재개 > 문안산-봉화산 방어선 포기하고 후퇴

- 공격적 전술 운용으로 다시 방어선 탈환, 진천 탈환 계획 세움
- 10일 저녁, 청주로 철수 : 유엔군 F-15전투기의 엄호
- 청주의 미호천에 방어진지 편성하였으나 아군의 후퇴로 철수

3. 음성지역 전투

- 한국군 '제 6사단 제7연대(중력 임부택)'가 맡고 있던 음성지역에 북한군 제 15사단이 공격
- 7월 5일 '무곡리'와 '동락리'에서 첫 전투
- 북한군 제15사단 제48연대의 경계 소홀
- 7월7일, 동락초등학교 김재옥 선생의 제보에 북한군의 경계소홀 사실을 확인하고 기습공격계획 세움
- 한국군 제6사단 7연대 2대대의 공격을 받고 달아난 북한군 노획한 북한군의 소련제 장비 및 무기
- ▶ 소련이 북한을 지원하였다는 사실 확인
- 계속적인 북한군 제15사단의 공격 > 결국 철수
- 전투이후 제 6사단 제7연대 모든 장병들이 1계급 특진

-화령장 지구전투

7.17일 16:00

수도사단 17연대 적 통신장교 납치

북한군 15사단병력 4열 중대 행진

한국군기습공격 : 200명 사살, 2트럭분 장비노획

-7.24일 한국군재편성(서북 :미군, 동북 : 국군)

1군단 : 8, 수도사단

2군단 : 1, 6사단

육본직할 : 3사단

4. 계속되는 지연전의 전개

충주- 제 6사단 2연대와 북한군 제 1, 12사단의 전투

제천 담양 -한국군 8사단과 북한군 8사단의 전투

- 상부의 잘못된 명령
 - 통신망 두절로 명령 진위확인이 늦어진 한국군
- >결국 제천을 포기하고 단양으로 후퇴
- 북한군의 경계가 느슨한 틈을 타 한국군의 기습공격
 - 북한군의 방어선 공격 > 죽령 부근으로 철수

동해안전선의 상황

-전투가 지연적으로 제한된 형태 : 해안선을 연한 동해안 도로가 유일한 통로였기 때문에

-제4사단23연대의 투입

-북한군의 공격 (제 5사단 945 육전대)

-제 22연대 복귀 요청, 결국 23연대 단독 방어함

5. 영덕 탈환작전

-제3사단, 예하 제 23연대와 독립 1대대로 이 지역을 방어

-7월 17일, 북한군의 영덕 점령

-7월 29일, 영덕을 다시 탈환

6. 미 제25사단 투입

-미 제 25사단, 예하에 제 24, 27, 35연대

-사단장은 킨 소장, 7월 10~15일 부산상륙

7. 미 제1기병사단 투입

-기병사단 : 메이커부대(신뢰할 수 있는 부대라는 인식)

-7월 18일부터 22일 동안 일본에서 포항으로 상륙하여 지연적 전개

서남부전선의 지연전

1. 전선의 형성 및 상황

- 미 지상군은 서부전선, 한국군의 주력은 중. 동부전선에 투입
- 호남지역의 방어를 위해 광주에 5사단, 전주에 7사단을 상호 편성(열악한 상황 및 환경/장병의 20%만 개인화기 지급 등)
- 북한군의 규모는 2개의 정예사단(제 4사단, 6사단 : 군산, 전주, 광주까지 진격)
- 상대적으로 막아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병창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군은 목포, 여수를 거쳐야 했고, 그 사이 미 제 25사단이 신속히 마산으로 이동, 방어선 구축에 성공(제2~4차 세계 대전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신속한 이동이었다고 평가됨)

2. 북한군 우회기동에 따른 조치

- 한국군 : 채병덕 소장을 영남지구 전투사령관으로 임명하여 방어토록 함
- 미군 : 미 제24사단을 진주-함양-거창 축선에 투입하여 방어(19연대-안의, 진주 34연대-거창, 21연대-합천)
- > 그러나, 안전하게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병력은 갖추지 못함

지연작전 결과 분석

-북한군 전투력 및 공격속도 둔화

북한군 전차 충격력 및 공격속도 둔화 : 야간작전 전환

-효율적인 방어로 시간획득

미군 증원시간 획득

한국군 재편성 및 지휘체계를 정비

-한. 미 합전선 형성 및 유엔군 창설

지연작전을 통하여 한미연합전선의 형성과 유엔군이 창설되어 북한군의 전투력 약화 및 공격속도를 둔화 시킴으로서 북한군 공격 저지여건 조성

7주차

-순서

- un군 참전 결정과 미군의 참전이유
- 한국군의 전력 회복
- 미 지상군 참전
- 지연전
- 지연작전 결과 분석

*안전보장이사회와 UN군 창설

-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 개최(1차 : 6.25, 2차 : 6.27)
- ◎맥아더 장군 전선시찰, 미지상군 투입건의 : 6.29
- ◎미 지상군 투입 결정 : 6.30
- ◎유엔 안보리 → UN군사령관 미국에 위임 : 7.7
- ◎맥아더 UN군사령관 임명 : 7.8

*미군의 참전 이유

- ◎봉쇄전략 위협(한국 공산화 → 일본, 기타국가)
- ◎공산화 방관시 인접자유국가 저항의지 상실
- ◎소련의 팽창주의 저지 (3차대전 도화선 사전제거)
- ◎UN의 기초 및 창설이념 유명무실 방지

*한국군의 전력 회복 과정

- ◎한강방어선 전투(6.28~7.4)
- ◎7월 3일 파괴된 한강 철교와 인도교를 북한군이 보수, 전차와 병력이 다리를 건너 남진 시작
- ◎7월 4일 시흥에 있던 '시흥지구전투사령부' 수원을 거쳐 평택으로 철수

*급조된 혼성부대지만...

- 북한의 남하속도를 최대한 늦춤
- 분산된 한국군의 전력을 수습할 시간 제공
- 한국군과 유엔군이 안정적으로 연합

*한강방어선 전투 이후 (7월4일)

- ◎한강방어선 붕괴 이후 수원으로 집결된 한국군들도 부대별로 평택으로 철수
- ◎주일미군 중 큐슈에 주둔해 있던 미 24사단의 전선배치(예하 21연대 1대대 스미스부대 선발대로 투입)
 - ▷▶오산, 안성, 평택을 연하는 선에 배치
- ◎평택-제천-울진을 연하는 선에서 유엔군과 한국군의 연합전선을 구축

▶한국군의 단독작전→유엔군과의 연합작전

*한국군의 전력 회복(7월5일)

6개의 급조된 혼성사단으로 구성된 시흥지구전투사령부

(제 1,2,3,5,7 수도사단)

→‘1군단 사령부’ (수도, 제 1, 2 사단)창설

※7월 14일 상주에서 제 6, 8사단으로 구성된 ‘2군단’창설

→2개 군산5개 사단으로 개편

최초의 군단편제, 전투력 또한 전쟁 직전 수준으로 회복.

*한국군 작전지휘권 이양(7월 7일)

◎맥아더 원수의 유엔군 사령부 창설 이후 연합군 병력들이 유엔군으로 편성

→맥아더 원수의 지휘를 받음

+반면에 한국군은 유엔군에 배속 안됨

◎원활한 한국군 지휘를 위해 7월 14일 한국군 전작권을 맥아더 원수에게 이양

→지금까지 지속됨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현 작전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이양한다.”

-이승만 대통령

*한국군 작전지휘권 이양(계속)

◎1950.7.2.13일 기준 병력

-미지상군 : 1.8만

-한국군 : 5.8만

◎7.14일, 이대통령 맥아더에게

-작전권 이양(서한형식)

-UN군, 한국군에게 적극 각종 물자지원

-부산항 1일20여척/ 1만톤 화물하역

◎김일성, 스탈린에게 잠수함으로 부산항 봉쇄요청

미지상군 참전

*미지상군 한국전 참전

최초 참전부대 : 스미스 기동부대(대대급)

◎50.7.1.08:00,사단장신고 (일본)

◎ 7.4, 오산-수원도로 근처 전개

◎ 7.5 08:16, 미군과 북한군 최초격돌

◎ 7.6, 미군 571명중 181명 전사 및 실종

+북한군과의 첫 전투에서 미군의 참패!

*미지상군 한국전 참전(계속)

◎스미스 부대의 역할

◎북한군 수원까지 240KM전개/ 진격지연

◎수원~대전간 북한군 약10일간 지체

+미공군의 맹폭격

◎미 24사단 전 병력 대전집결 가능

◎미군참전으로 한국군 사기 고양

사진-1950년 7월2일 대전에 입성한 스미스 부대

스미스부대의 군기 : 어느 한 병사가 폭염을 피하기 위해 양산을 쓰고 배식을 받고 있다.

죽미령 전투의 과정

①7월5일 오전7시경 수원부군에서 북한군 제 4사단의 움직임을 목격

②스미스 부대는 접근해 오는 적의 전차를 기다렸다가 적합한 장소에서 기습공격을 하기로 함

③대전차고폭탄 발사를 시작으로 적 전차에 포탄을 퍼부었으나 멈추지 않고 북한군은 스미스 부대의 진지를 공격함

④적의 전차 뒤를 따르는 보병부대와 싸웠으나 중대가 위험에 처하자 철수를 명령함.

○1950년 7월5일, 미 제52포병대대 소속 M2A1 105mm곡사포의 방열 후 첫 사격

*미군과 북한군의 반응

미국의 반응	북한의 반응
-북한의 남한침략은 소련과 중국이 북한을 사주하여 미국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미국은 죽미령 전투를 겪고 난 이후, 비로소 북한군에 대한 제대로 된 전력 파악을 하였다.	-북한군은 미국을 참전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당황. -미국의 참전을 알고 난 후 전쟁계획을 ‘빠른 공격’으로 수정하는 등 미군에 대한 투지를 불태웠음.

*미지상군 한국전 참전(계속)

◎미 24사단 34연대 격돌(평택, 천안)

-미측 북한군 전력 재평가

-북한군 T-34 탱크 격파불가 (2.36 로켓포)

-미 3연대 마틴 대령 전사 : 천안 추모공원

◎전의·조치원 전투

-피난민 활용 미군 대전차 지뢰제거

-북한군 게릴라 최대 활용

*개미고개의 유래

-미군 조치원, 금강선으로 후퇴

○천안 전투

7월 7일, 천안부근에 미군의 50구경 중기관총을 실은 트럭이 벼짚단으로 위장되어있다. 중기관총으로 사수들이 위장 매복하여 적군의 남하를 감시하고 있다.

○전의에서 미군전차 최초교전

천안남부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M-24탱크. 미군탱크는 7월11일 전의전투에서 처음으로 적탱크와 교전함으로써 비로소 재구실을 했다.

○전의를 통과하는 M24형 전차

한국군은 중부산악지역의 험준한 지형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지연작전을 실시함으로써 북한군의 남하가 순조롭지 못했으나, 경부축선의 전의, 조치원에서의 미군의 지연작전은 실패하고 말았다.

○전의 교량거부 준비

조치원에서 교량폭파를 준비하고있는 미군 공병대의 모습이다.

*지연전

◎한미 연합전선 형성/ 국군 재편성(7.4~6)

-미군 참전으로 한국군 철수부대 안정

-시흥사 해제 및 제 1군단 창설(수도1·2사단)

-7.5 방어선 : 죽미령(Smith TF)-죽산(6사단 19연대)

*무극리(6사단 7연대)-충주(6사단(-))-제천(8사단)

*울진(23연대)

*지연전(계속)

부축선/ 차령산맥선 지연전(7.7~14)

-한국군 담당지역 축소로 효과적인 지연전 가능(공세적 행동 병행)

-7.7 방어선: 천안~진천~ 음성~ 충주~ 단양~ 울진

-주요 전투

*경부축선: 천안, 조치원 전투

*차령산맥선 전투 : 진천, 음성/ 괴산, 충주/ 수안보, 제천 / 단양전투

*지연전(계속)

◎금강 및 소백산맥선 지연전 (7.14~25)

-한국군 지휘권 이양 / 한국군 제 2군단 창설 (7.14)

-7.14 방어선 : 금강산-문경-죽령-평해

-한국군 전선 조정(7.24)

*제 1군단(안동), 제2군단(함창)

*제3사단 재창설 영덕 투입

-주요 전투

*금강산 전투 : 공주/ 대평리, 대전지구, 영동/ 김천 전투

*소백산맥선 전투-화령장지구, 이화령/ 함창, 죽령/ 안동, 영해/ 영덕전투

-7.25방어선 : 영동~상주~함창~예천~안동~영덕

■지연작전경과

7.3한강선 붕괴

7.4시흥사 해체, 국군 재편성

7.5죽미령전투(08:16)

7.6~7.8 평택-안성전투/7.6~7.10 진천-청주전투

7.8~7.12 전의-조치원전투

7.14~7.16 금강방어선 전투

7.17~7.21 화령장전투

7.18~7.20 대전 전투

7.24 3차개편

공주-대평리 전투

-기간 : '50.7.16~7.16

-장소 : 공주~ 대평리/ 금강일대

-부대 *적군 : 북한군 제 3·4사단 예하부대

*아군 : 미 제24사단 34·19연대

-지형적 가치

*북한군측 입장 : 금강 및 소백산의 천연 장애물을 이용하여 강력한 저지선을 형성하기 전에 신속히 돌파하여 대전을 점령하기 위한 중요지형

*미군측 입장 : 금강과 소백산맥을 연하는 방어선은 대전 확보측면에서 볼 때 절대적으로 중요한 천연 장애물임

: 금강을 사이에 두고 피·아 대치할 경우 공주-유성간 도로를 적의 김제로 방어시 취약함

■금강 방어선 전투가 벌어진 금강에 대해서 알아보기!!

금강은?

-절라북도 장수군 장수읍에서 발원하여 충청남북도를 거쳐 황해로 흐르는 강으로 강경에서부터 충청남도-전라북도 도계를 이루며 군산만으로 물이 흘러 들어감.

-총길이 394.79km, 유역면적 9,912.15 km²인 강.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긴 강. 옛날부터 농업생산과 해상교통의 발달, 방어에 유리한 지형으로 일찍이 공주, 강경, 부여 등 고도와 옛 상업도시가 발달함.

-금강=호강(물살이 잔잔해서)=백상

-금강 상류에는 대청댐 위치, 하류에는 금강 하구 독이 위치 해 있는 국가하천.

■공주 및 대평리 전투

○유엔군의 두가지의 불리한 요인?

1)전투력의 차이 - 각 연대마다 병력은 단지 2개 대대씩만 편성되어 있었음

- 즉시 전투에 투입이 가능했던 부대는 딱 절반인 3개 대대 뿐이었음.

2)넓은 방어 범위 - 애초에 보유하고 있던 병력이 적에 비해 현저히 부족했음.

-기용병력이 겨우 절반뿐인 상황에서 정면 30km가 넘는 넓은 범위를 담당함

-북한군은 유연한 전술 사용

○결과

미군은 서부전선의 미 제24사단이 연이어 패배하자, 1개사단의 증원만으로는 북한군을 막아낼 수 없음을 인지하고 추가로 미 제25사단과 미 제 1기병사단의 증원을 서두르게 됨.

-금강전투 : 천안, 조치원전투에서 패한 미군은 금강이라는 천연 장애물을 이용하여 북한군을 지연하기 위해 금강에서 방어를 실시했다.

-조명탄으로 밝아진 금강교 : 북한군의 야습을 경계하기 위하여 미 제 34연대가 쏘아올린 조명탄으로 대낮같이 밝아진 금강교의 모습

-금강의 야간조명탄 : 야음을 틈탄 적의 도하를 방지하기 위해 금강교 위에서 터진 조명탄, 8 군사령관 워커중장은 적을 금강선에서 저지하라는 명령을 미 제24사단에 시달렸다. 그러나 그것은 사태에 대한 지나친 낙관이었다.

-1950년 7월 13일, 금강교 폭파 : 금강전투는 미 제24사단에게 치욕적인 전투로, 많은 병사와 장비를 잃었다. 이들은 금강교를 폭파하는 등 최선을 다해 지역작전을 폈다.

-금강 남안 제방의 미 19연대 : 이들은 1950년 7월 14일 금강교 북쪽에 집결한 북한군에게 대항하여 집중사격을 퍼부었다.

-미군포병의 집중 사격 : 금강교 북쪽에 집결한 북한군에 대해 미군포병이 집중사격을 퍼붓고 있다.

-지연전을 위해 폭파된 금강교 : 공부북측의 금강교를 폭파함으로써 지연작전을 폈는데 이 사진은 금강교가 폭파된 후의 광경이다.

-북한군을 M1으로 제압하는 미 19연대 : 1950년 7월 15일 대평리 정면에서 금강북안의 북한군을 M1(81밀리 박격포)으로 제압하는 모습이다. 미 제24사단은 금강방어에 전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붕괴되어 7월 16일 대전으로 후퇴할 수 밖에 없었다.

■대전의 25시(7.1일 전후)

-대전 형무소 좌익 수감자 난동(여순반란군 2,000여명)

*대전시내 한국군병력전무

*형무소장 외 전 직원 도주-수감자 탈옥실패(서울형무소 경우 북한군 접수 / 죄수 석방)

-정부 계엄령 선포(50.7.8)

*단, 전남·북 지역 제외

■대전 전투

-기간 : 1950.7.18.~20

-장소 : 금강선 이남 대전 시내

-피.아 부대

*북한군-제 3보병사단(7.8.9연대)/제 4보병사단(5,16,18연대)/제 105전차사단

*아군(미군)-미 제24사단(단 소장) 34연대/ 제19연대 2대대/ 제 21연대 1대대

■전투경과

◎피.아 작전 계획

○북한군

-7월 16일 금강선 돌파 후 제 3사단은 제 105전차 사단의 지원하 경부 국도를 따라 대전 서북쪽에서 공격

-제4사단은 논산도로를 따라 대전 서남쪽에서 공격하되 18연대는 남쪽 금산 도로로 우회 퇴로 차단

○아군 (미군)(18일 워커 중장 방문)

-미 24사단(단 소장) 대전지역을 방어 적의 공격을 20일 까지 저지/지연

-제 21연대 1대대는 대전 동측방 방어와 34연대 철수로 확보하고, 19연대 2대대는 34연대에 배속 운용

-사단에서는 포병과 수색중대 지원 배속

◎미24사단장 (*딘 소장)

-1899년 8월 1일생, 치과의사 아들

-미 육군 사관학교 지원 낙방

-1923년 보병소위로 임관

-1940년 소령진급

-1941년 중령, 42년 대령진급

-1948년5월 미 24사단장으로 취임

-1950년7월 한국전에 최초 투입

-대전지구 전투에서 철수중 길을 잃고 북한군의 포로가 되었다가 휴전후 포로교환 1순위로 석방됨(53.9.4)

■미 24사단의 대전 혈투

-7.19일, 북한군 3개사단 대전포기/ 총 공격

-7.20. 04:00, T-34 3대 충남대→시내진입

*미군 최초 3.5 로켓포 로 2대 격파

*딘 소장 짚차로 추격 1대 추가격파

-7.20오전, 24사단 와해/ 사단장 실종

16:20, 미구출대 대전역 도착/ 수색

*사단장 구출실패 (미군 32명 몰살)

■전투 결과

○미군의 총격과 수모

50.6.30 미 지상군 투입 결정

50.7.5 미 24사단 오산 전투 투입 = 우린 미군이다 “어흥”

미 24사단장(딘 소장)전사 (행방불명)

최초 미 24사단 전투력-병력 : 15,956명, 차량 : 4,773대

오산전투-대전 전투(17일간)후

* 병력 : 8,660명, 장비 : 60%

미 24사단 대구부근에 재편성

*사단장 재 취임(처치 소장)

○미 24사단장의 희생

-제 1기병사단 영동 전개시간 지연

-최후까지 대전에 남아 지휘한 이유

-제 34연대와 그 배속부대원들의 사기를 고무시키기 위함

- 한국군 지휘관들에게 지휘의도 시범 한국군의 전투의지 고양
- 북한군의 전투수행 방법을 현장에서 직접 관찰하고 대응하기 위함
- 첩자 한두규 구속시 탄원서 제출

■중·동부 전선의 지연전

1. 중·동부 전선의 형성

- 7월 5일, 미 제24사단이 서부전선에 배치됨
- 한국군이 중·동부 전선 담당
- (서쪽 : 수도사단, 제1, 2사단/ 동쪽: 제6,8사단/ 동해안 방면 : 제3사단)

2.진천·청주지역 전투

- 7월 8일, 북한군 제2사단의 진천북단 공격 : 진천-청주를 지나 대전으로 진격 목적
- 진천북단에서 후퇴하여 남단으로 이동, 문안산-봉화산의 방어선 구축
- 9일 아침, 북한군 공격 재개 → 문안산-봉화산 방어선포기하고 후퇴
- 공격적 전술 운용으로 다시 방어선 탈환, 진천 탈환 계획 세움
- 10일 저녁, 청주로 철수 : 유엔군 F-51전투기의 엄호
- 청주의 미호천에 방어진지 편성하였으나 아군의 후퇴로 철수

3.음성지역 전투

- 한국군 '제6사단 제7연대(중령 임부택)'가 맡고 있던 음성지역에 북한군 제15사단이 공격
- 7월 5일 '무극리'와 '동락리'에서 첫 전투
- 북한군 제15사단 제48연대의 경계소홀
- 7월 7일, 동락초등학교 김재옥 선생의 제보에 북한군의 경계소홀 사실을 확인하고 기습공격 계획을 세움
- 한국군 제6사단 7연대 2대대의 공격을 받고 달아난 북한군
- *노획한 북한군의 소련제 장비 및 무기→소련이 북한을 지원하였다는 사실 확인
- 계속적인 북한군 제 15사단의 공격 →결국 철수
- 전투이후 제 6사단 제7연대 모든 장병들이 1계급 특진

○화령장 지구전투

- 7.17일 16:00
- 수도사단 17연대 적 통신장교 납치
- 북한군 15사단병력 4열 중대 행진
- 한국군기습공격 : 200명 사살, 2트럭분 장비 노획
- 7.24일 한국군재편성(서북: 미군, 동북 : 국군)
- 1군단 : 8, 수도사단
- 2군단 : 1, 6사단
- 육본직할 : 3사단

4. 계속되는 지연전의 전개

- 충주-제 6사단 2연대와 북한군 제 1,12사단의 전투
- 제천-단양-한국군 8사단과 북한군 8사단의 전투
- 상부의 잘못된 명령
- 통신망 두절로 명령진위확인이 늦어진 한국군
 - 결국 제천을 포기하고 단양으로 후퇴
- 북한군의 경계가 느슨한 틈을 타 한국군의 기습공격
- 북한군의 방어선 공격→죽령 부근으로 철수
- 동해안전선의 상황
- 전투가 지역적으로 제한된 형태 : 해안선을 연한 동해안 도로가 유일한 통로였기 때문에
- 제 3사단 23연대의 투입
- 북한군의 공격(제5 사단945 육전대)
- 제 22연대 복귀 요청, 결국 23연대 단독 방어함

5. 영덕 탈환작전

- 제3사단, 예하 제23연대와 독립 1대대로 이 지역을 방어
- 7월 17일, 북한군의 영덕 점령
- 7월 29일, 영덕을 다시 탈환

6. 미 제25사단 투입

- 미 제25사단, 예하에 제24, 27, 35연대
- 사단장은 킨(Kean)소장, 7월10-15일 부산상륙

7. 미 제1기병사단 투입

- 기병사단 : 메이커부대(신뢰할 수 있는 부대라는 인식)
- 7월 18일부터 22일 동안 일본에서 포항으로 상륙하여 지연전 전개

■서남부전선의 지연전

1. 전선의 형성 및 상황

- 미 지상군은 서부전선, 한국군의 주력은 중·동부전선에 투입
- 호남지역의 방어를 위해 광주에 5사단, 전주에 7사단을 새로 편성(열악한 상황 및 환경/장병의 20%만 개인화기 지급 등)
- 북한군의 규모는 2개의 정예사단(제 4사단, 6사단 : 군산, 전주, 광주까지 진격)
- 상대적으로 막아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병참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군은 목포, 여수를 거쳐야 했고, 그 사이 미 제25사단이 신속히 마산으로 이동, 방어선 구축에 성공(제2차 세계 대전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신속한 이동이었다고 평가됨)

2. 북한군 우회기동에 따른 조치

- 한국군 : 채병덕 소장을 영남지구 전투사령관으로 임명하여 방어토록 함
- 미군 : 미 제24사단을 진주-함양-거창 축선에서 투입하여 방어(19연대-안의, 진주34연대-

거창21연대-합천) → 그러나, 안전하게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병력은 갖추지 못함

지연작전 결과 분석

■북한군 전투력 및 공격속도 둔화

○북한군 전차 충격력 및 공격속도 둔화 : 야간작전 전환

■효율적인 방어로 시간획득

○미군 증원 시간 획득

○한국군 재편성 및 지휘체계를 정비

■한·미연합전선 형성 및 유엔군 창설

※지연작전을 통하여 한미연합전선의 형성과 유엔군이 창설되어 북한군의 전투력 약화 및 공격속도를 둔화시킴으로서 북한군 공격 저지여건 조성